

해당 항체치료제는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CT-P59'다. 앞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9월 중 항체치료제 생산 계획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서 회장은 전날 에도 온라인으로 열린 '2020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에서 "항체치료제의 9월 중 대량 생산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9월 말부터 임상 2상에 돌입해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면 올해 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1인 홈쇼핑’ 대세…中 정부, 1000만 쇼호스트 키웠다

실시간 생방으로 개인간 거래
코로나 여파 ‘온택트 쇼핑’ 각광
中 시청 인구만 5억6000만명
올해 시장 규모 202兆 전망

#항공사 승무원으로 재직하던 명 후(27)는 8개월 전 회사에 사표를 던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 아니다. 인터넷 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방송을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의 온라인 장터 ‘타오바오’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쇼핑을 진행, 현재까지 무려 40만 명이 넘는 팬을 거느리며 인플루언서의 꿈을 이뤘다.

중국에서 엔터테인먼트와 전자상거래를 융합한 ‘라이브 스트리밍 쇼핑’이 급부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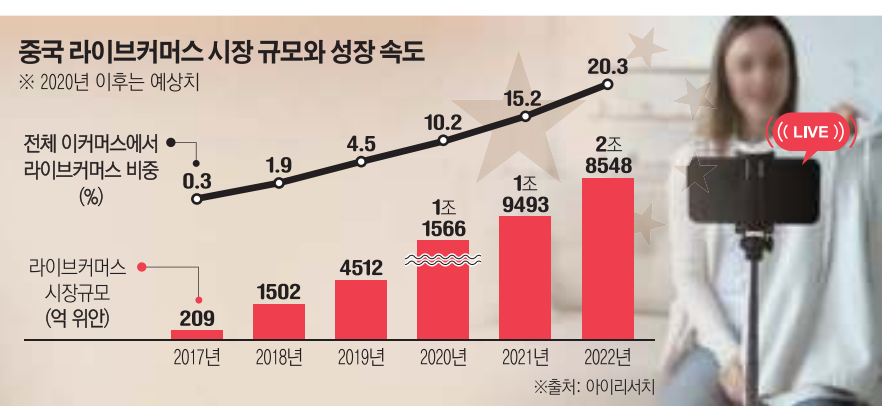
라이브 스트리밍 쇼핑은 판매자가 실시간 영상으로 다양한 최신 상품을 소개하면, 시청자들이 그 제품을 바로 온라인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온라인장터 ‘타오바오’에서 한 판매자가 실시간 영상을 통해 인조손톱을 판매하고 있다.

로 구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매업이다. 국내에서는 ‘라이브 커머스(생방송 쇼핑)’라고도 불린다. 이 시장은 수년 동안 중국 인터넷 문화의 일부였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비접촉을 추구하는 언택트(비대면) 경제가 부상하면서 주류로 떠올랐다고 7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중국은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쇼핑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올해 5월 새로운 직업 목록에 ‘라이브 스트리밍 쇼핑 호스트’를 추가했다. 정부가 이들을 공식 노동자로 간



타오바오 방송 캡처

주하겠다는 의미다. 중국 국영 언론들은 “이것이 중국의 새로운 ‘일자리 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많은 사람들은 라이브 스트리밍 쇼핑을 ‘TV 홈쇼핑’에 비유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보다 상호작용적이라는 점에서 차별화한다고 CNN은 평가했다. 진행자는 자신의 팬들에게 실시간으로 할인 쿠폰이나 반짝 세일(flash deal)을 제공할 수 있다. 시청자들은 클릭을 통해 좋아하는 쇼핑 호스트에게 선물을 보낼 수도 있다.

중국의 라이브 스트리밍 쇼핑 산업은

2019년 기준 약 660억 달러(약 78조 원)의 대규모 산업으로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온라인에서 1000만 개 이상의 라이브 스트리밍 쇼핑 방송이 진행됐다. 3월 기준 중국에서 이 방송을 시청한 인구는 5억 6000만 명으로, 작년 6월 대비 1억2600만 명이 늘었다. 또 이들 중 거의 절반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쇼핑을 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해당 산업이 급부상한 이유를 코로나19 사태에서 찾았다. 가트너의 샌디 쉐 전자상거래 연구 책임자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이었다면 라이브 스트리밍 쇼핑이 대세가 되는 데 2~3

년은 걸렸을 것”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2~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하면서 오프라인 소비 활동이 급격히 위축됐고, 이 자리를 라이브 스트리밍 쇼핑이 대체하면서 두드러지게 성장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시대’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라이브 스트리밍 쇼핑 시장은 앞으로도 급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시장조사회사 아이리서치는 중국의 라이브 스트리밍 쇼핑 시장이 지난해 660억 달러 규모에서 올해는 1700억 달러 수준으로 두 배 이상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변호선 기자 hsbun@

라이브 스트리밍 쇼핑
(Live-streaming shopping)
쇼 호스트와 소비자가 실시간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소통하면서 바로 상품을 사고파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형태. 이 산업이 비약적인 속도로 성장하자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화상으로 회식해요”…랜선 술자리 즐기는 2030

온라인강의 익숙해 거부감 없어



대학생 박주연(24·여) 씨는 술이 마시고 싶을 때면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과 안주거리를 꺼내 컴퓨터 앞에 앉는다. 그리고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켜다. 컴퓨터 화면에는 술을 들고 온 친구들이 다 같이 맥주 한 캔씩 들고 앉아 있다. 서로의 얼굴이 떠 있는 화면에서는 이내 왁자지껄한 수다가 이어진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지금, 2030세대를 사이에선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술자리를 갖는 일명 ‘랜선 술자리’가 유행하고 있다. 랜선 술자리란 술집 등의 오프라인

이 아닌 집에서 컴퓨터를 앞에 두고 이뤄지는 음주 문화를 의미한다. 이미 ‘비대면 강의’를 통해 화상회의가 익숙해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모임에 제약을 받지 찾은 대안이다.

랜선 술자리의 가장 큰 장점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도권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으로 식당·주점들이 오후 9시면 문을 닫지만, 랜선 술자리는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꾸밈없는 모습, 서로 다른 안주 등 랜선 술자리만의 독특한 재미도 있다.

대학생 허진(21·여) 씨는 “비록 화면을

통한 만남이긴 하지만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도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술집에 가면 시킬 수 있는 메뉴가 한정적인데, 온라인으로 만날 때는 서로 준비해 오는 음식의 메뉴가 각각 달라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랜선 술자리에도 단점은 있다. 그동안 술자리는 대면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화상을 통한 대화가 어색하거나 프로그램 자체 문제 등이 존재한다.

대학생 A 씨는 “술을 마신다는 것은 서로 술을 따르고, 같은 안주를 공유하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일종의 추억을 만드는 행위”라며 “이렇게 랜선으로 만나 마시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기술적 특성상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면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젊은 세대들이 굳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만남을 갖는 이유는 뭘까. 이동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랜선 술자리가 ‘소속감’의 욕구로부터 기인한다고 봤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는 느낌, 즉 소속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언택트 문화가 발달해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은 화상으로 모임을 하는 것이 기성세대들보다 훨씬 거부감이 없을 것 같다”며 “집에 가만히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기 마련인데 화상을 통해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코로나 블루(코로나 우울증)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대한 기자 vishalist@

aT가 함께 합니다

지속가능한 우리 농어업!
잘사는 우리 농어업인!

농식품 수급안정

식품산업육성

농수산물 수출진흥

농식품 유통개선

POS-mall

수급조절위원회

국민의 내일을 위한 aT혁신

보다 나은 우리 농식품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대표전화 061-931-1114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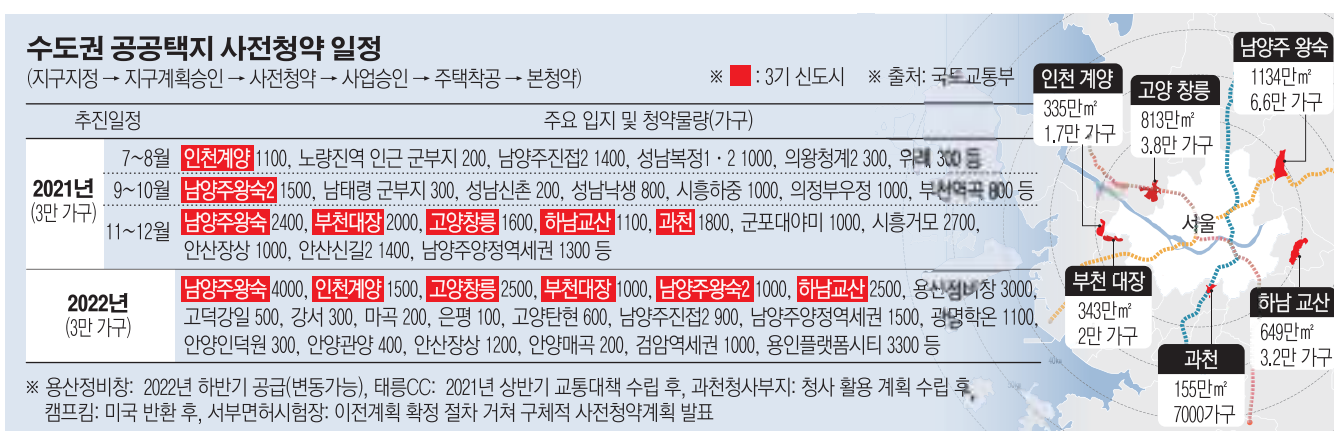
서울 물량 5000가구... 태릉골프장 등 ‘알짜’ 빠져 비격

정부가 8일 내놓은 6만 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이 당장 불안감에 집을 사는 3040세대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 행렬은 다소 진정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자체와의 파열음으로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과천유휴지 등 ‘알짜’ 공급 부지는 결국 이번 사전청약 물량대상에서 빠져 도심 공급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청약 6만 가구 ‘전시효과’…패닉 바잉은 ‘일부 진정’=국토교통부가 이날 내놓은 사전청약 물량은 총 6만 가구다. 2022년까지 내놓겠다고 공언한 수도권 아파트 총 37만 가구 중 16%를 차지하는 물량이다.

정부가 당초 9000가구 규모였던 사전청약 물량을 6만 가구까지 늘린 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심리와 패닉 바잉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특히 이날 나온 사전청약 공급안은 추상적 계획을 넘어 공급 일정 ‘시간표’를 확실하게 제시해 달아오른 주택 매수 열기나 청약시장 광풍을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



3기 신도시 입지, 2기보다 우수 서울 주택수요 분산시키는 효과 입주까지 5~6년... 전월세 불안

수)은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 입지보다 우수해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며 “특히 중저가 아파트를 노리는 젊은층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해 서울 일부 지역 매수 열기는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효과가 어디까지나 ‘일부’에 그칠 것으로 점치는 전문가도 많다. 사전청약은 당장 내년 하반기 시작되지만, 본청약까지는 1~2년이 더 걸리는 데다 실제 입주까지는 5~6년 이상이 걸린다. 내 집을 당장 마련하고 싶은 젊은층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들 수요가 사전청약에 나선 뒤 입주 시점까지 임대차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만큼 전월세 시장 불안은 불가피하다.

◇서울 사전청약 5000가구·속 빠진 ‘알짜’ 땅=정부가 내놓은 6만 가구 사전청약

용산 캠프킴, 미군 반환 후 결정 태릉골프장은 교통대책 후 발표 지자체 반발에 백지화 가능성도

물량 중 서울 공급 물량은 5000가구 수준이다. 그러나 이날 계획안에 적시된 물량은 노량진역 인근 군(軍)부지(200가구)와 용산 정비창(3000가구), 고덕 강일(500가구), 강서(300가구), 마곡(200가구), 은평(100가구) 정도다.

시장의 기대가 컸던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용산구 캠프킴 부지는 아예 빠졌다. 그나마 명단에 이름을 올린 용산역 정비창 부지는 2022년 하반기에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서울 주택시장의 단기적 안정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태릉골프장의 경우 교통대책 수립 이후, 용산 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에야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 부지가 이번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건 지자체와의 불협화음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저항이 워낙 거세 파열음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두 지역의 공급 계획 자체가 어그러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 부지의 상징성이 커 어떻게든 공급을 밀어붙일 것”이라면서도 “지자체 협의가 난항을 보일 가능성이 커 공급안 백지화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3기 신도시 아파트 절반, 중형으로

(전용 60~85㎡)

수요층 90%가 60㎡ 이상 선호 업계 “새로운 시도” 긍정적 평가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최대 확대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조성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에 3~4인 가족도 살 수 있는 중형급(전용면적 60~85㎡) 공급을 전체 물량의 최대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소형 위주의 기존 공급 틀을 깨 결정으로 변화하는 수요층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단지에서 전용 60~85㎡ 규모 주택 비율을 30~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법규상 공공분양 단지에서 전용 60~85㎡ 비율은 15%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규를 개정해 최대 50%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내 민간 단지에선 전용 60~85㎡ 주택이 통상 60% 이상(85㎡ 초과

20% 이상) 공급된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청약알림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한 12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60%가 원하는 가구면적으로 전용 60~85㎡를 선택했다. 이어 전용 85㎡ 초과가 29%로 10명 중 9명이 중형 이상의 집을 원했다. 전용 60㎡ 이하 10%에 불과했다.

김홍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면적이 커지면 분양가는 올라가겠지만 주변 시세 대비 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간 업계의 대세를 따라 공공주택의 면적을 늘리고 설계를 개선한 정부의 정책 변화에 시장은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혼부부도 자녀를 낳으면 더 큰 집이 필요하니 이런 정책 방향은 좋다”면서 “공공아파트라고 무조건 저렴하게 지으라는 법은 없으니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소득요건·신혼 여부, 사전청약 시점 기준 의무거주기간은 본청약 때까지 채우면 돼

신청 자격은

내년 여름께부터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통해 수도권 6만 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을 받기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진행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사전청약 자격 역시 본청약과 같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 입주자 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별공급(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공급 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거주 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에 필요한 의무 거주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다.

당장 사전청약이 예정된 지역에 거주하

는 사람이 아니라도 청약 기회는 열려 있는 셈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2년,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1년까지 해당 지역에 실거주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가구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 주택에 사전청약할 수 없다. 다른 주택의 본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까지 시간이 1~2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소득 요건이나 신혼부부 여부 등 신청 자격은 본청약이 아닌 사전청약 때를 기준으로 한다. 사전청약 이후 소득이 늘어나 기준을 초과하거나 혼인기간이 7년을 넘겨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선영 기자 moon@

우리금융그룹

함께하는 든든한 금융

**즐거움은 정석
살맛나는 인생**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카드의 정석입니다

꿈을 위해 애쓰고
건강을 위해 힘쓰고
사랑을 위해 마음쓰는
당신을 위해
쓸 때마다 힘이 되는
카드가 되는 것

카드의 정석입니다

쓸 때마다 힘이 되는 카드의 정석

우리카드

·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우리카드 홈페이지 및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I는 삶의 일부... 비대면 산업 육성이 최대 목표”

기조강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6월부터 비대면 규제 혁파 추진
중소 등 디지털 경제 대전환 관건

상반기 정보통신 창업 16% 상승
‘포스트 코로나’ 중요한 삶의 지표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목표는 비대면 산업 육성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이투데이미디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장관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스마트 대한민국”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비대면 규제를 혁파하는 작업을 6월부터 해왔다”면서 부산 블루체인 특구, 세종 자율 주행차 특구, 강원 원격 의료 특구 등을 예로 들었다.

박 장관은 “생활 속으로 인공지능(AI)이 깊숙하게 들어왔다”며 현재 국내 디지털 경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구체적인 사례로 포스코 공장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누구도 AI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포스코가 했다”며 “이를 성공시킨 사람은 27년 동안 용광로 옆에서 용광로를 관찰하던 포스코 근로자”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과거에는 사람이 보고 수분 함량을 계산했던 철광석, 석탄 사진을 전부 찍어 수십만 장을 담겨놓은 수분 함량을 알아냈다”며 “이로 인해 일일 생산량이 240톤 늘고 연간 13억 원을 절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철광석과 석탄을 섞어 쇳물을 만드는 과정이 도넛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했다”며 “식약처에 포스코 사례를 식품 공장에 적용해 보면 어떻겠냐고 아이디어를 줬다”고 밝혔다. 그는 “스마트공장의 사례가 최근 식품업계로 번지고 있다”며 “스마트공장이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핵심적인 노하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단계별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 상반기 창업이 예상을 깨고 26% 늘었다”며 “정보통신업이 15.6%로 가장 크게 상승한 게 코로나19 이후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분석했다.

박 장관은 “벤처기업 전체 일자리 비율이 67만 명”이라며 우리나라 4대 그룹의 일자리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67만 명의 벤처인들이 상반기 우리나라의 경제 버팀목”이라며 “모두 일자리가 줄고 꺾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던 분야가 벤처”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PC와 모바일, 클라우드, AI 개발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클라우드 산업 투자를 게을리한 것이 실수였다고 판단했다. 그는 “중국의 추격에 힘겨워했던 부분 중 하나이지만 AI를 다시 리부팅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클라우드 산업에 투자해 AI 기술 인력과 집목하는 작업을 계속하면 이 분야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의 목표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대기업은 스스로 알아서 잘하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이 디지털로 대전환하는 게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문수빈 기자 bean@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스마트 대한민국'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미디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2020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물결-다양성과 포용성’을 주제로 열렸으며, 다양성이 존중되고 여성과 남성 모두가 평등의식을 갖고 함께 나아감으로써 금융 산업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 김상경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회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최윤열 전 민주당 국회의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민상기 서울파이낸셜그룹 회장, 김상철 이투데이미디어 대표 등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관석 “성차별 해소 입법 지원” 이정옥 “여성인재 DB 구축”

콘퍼런스 축하

“사회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도 입법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8일 이투데이미디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금융권에서 앞장서서 여성 경제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경영 정책을 펼쳐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 활동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아직 주요 선진 국가들에 비해 미흡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고용 부문 성평등 현실을 진단하는 보고서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대 초반으로 OECD 전체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성별 간 임금 격차는 34%로, OECD 전체 평균

인 13%보다 한참 높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성별 간 임금 격차가 커지는 점도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소득 9분위의 경우 성별 간 임금 격차가 무려 36%에 달했다”며 “국내 200대 상장사 여성 등기임원 비율은 고작 2.7%로,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80%가 여성 등기 임원을 한 명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여성 등기임원 선임을 의무화 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면서 “이

번 행사를 통해 여성 금융인들이 보다 강한 의욕을 갖고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참석해 여성과 금융의 역할을 비교하며, 사회의 저수지 역할을 하는 금융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전 세계가 발전 패러다임을 바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은행은 이제까지 사회에서 재정적으로 피난처와 저수지 역할을 수행했다”며 “특히 코로나19 같은 재난



윤관석 정무위원장 이정옥 여가부 장관

상황에서는 금융산업의 역할이 더욱 더 양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권에서 여성 임원 비율은 4%로, 다른 산업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여가부에서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금융권에 유리천장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설문을 했는데 남성은 30%가, 여성은 75%가 존재한다고 답했다”며 “유리천장의 원인으로 남성은 여성 후보자 부족을, 여성은 남성 위주의 환경을 선택해 성별에 따른 답변 차이를 알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여가부가 조사한 결과 기업은 자본시장법을 이행하는 데 여성 후보군이 없다는 애로 사항을 토로하고, 여성 인재의 DB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이런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더 많은 여성 임원을 고용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녹색금융, 과학·사회·금융을 잇는 혁명”

특별강연 리안 마리 토마스 영국 그린파이낸스 인스티튜트 CEO

“녹색금융은 과학과 사회, 그리고 금융을 삼각형으로 이어주는 혁명이다.”

리안 마리 토마스 영국 그린 파이낸스 인스티튜트 CEO는 8일 이투데이미디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특별강연에서 이 같은 녹색금융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강연에 따르면, 녹색금융은 환경·에너지 등과 관련된 금융활동을 통합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구체적으로는 환경 개선, 금융산업 발전,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 개선과 녹색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금융 부

“사회적책임 도입 과정과 비슷
기업들 10년 후 중요성 깨달아”

문에서도 기업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녹색금융의 개념이 등장했다.

토마스 CEO는 “영국 정부가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가 열린 이후 녹색금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당시에는 ‘녹색금융’이라는 것이 새로운 개념이었고, ‘녹색채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정부가 2016년 녹색금융 이니셔티브를 만들었을 때 런던 시공사와 영

국 정부 재무부(HMT) 간 합작 투자가 그 시초가 됐다”며 “우리가 원했던 것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을 만드는 것이었고,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환경에 유익한 많은 분야와 관련된 금융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녹색금융은 매우 희소한 개념이었지만, 발전을 거듭해 현재 주류가 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녹색금융과 사회적책임(CSR)을 비교하면서 녹색금융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CSR를 도입하던 과정도 녹색금융과 비슷하다. 이 개념이 기업에 도입되고 10년이 지나서야 기업은 해당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했다.

토마스 CEO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전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평판을 잃어버렸다”며 “금융 시장



리안 마리 토마스 영국 그린 파이낸스 인스티튜트 CEO가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를 만들기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 탐욕만을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금융은 과학과 사회 그리고 금융을 삼각형으로 이어줄 수 있는 기회다. 기업 투자자든 녹색금융 기관 운영자든 혹은 금융인이든 녹색금융의 삼각형으로 다 같이 연결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최운열 전 민주당 의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수 우리금융지주 회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임원의 다양성, 글로벌 시대 금융산업 발전에 필수”

지속가능 성장 이끄는 새로운 물결-다양성과 포용성

국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성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단순히 여성 인력을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원부터 팀장, 임원까지 전 분야에 걸쳐 여성 인력을 확대하는 경영전략에 공감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성차별 대신 남성과 여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자고 약속했다.

8일 이투데이미디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2020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컨퍼런스’에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수 우리금융지주 회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여성 인력 육성과 성평등을 위한 경영전략을 공유했다.

사회를 맡은 최운열 전 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조직 상충부의 다양성은 금융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시대적 요구”라며 “금융산업은 여성 친화적 업종으로 여성 진입이 50%가 넘고 있으나 아직 여성 관리자들의 진출은 활발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여성 임원 3분의 1 확대, 환경 조성=윤종규 회장은 “여성 인력을 체계적으로

장은 “여성은 가사와 육아 부담, 직장 내 치열한 경쟁 등에 직면해 있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 친화적 문화 구축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한에선) 남성 육아 휴직제도가 활성화하고 있다”며 “2013년 첫 시행 때는 단 2명만 휴직을 신청했지만, 지금은 220여 명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도 근무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 위주 제도 탈피, 차별 없는 문화’=금융권 CEO들은 남성 위주의 제도를 버리고 남녀 차별 대신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문화를 정립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태수 회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성평등 제도가 시행돼 여성 금융인이 자기 능력을 100% 이상 발휘할 수 있다”

윤종규 “임원 3분의 1까지 확대”
조용병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손태수 “생애주기별 성 평등제”
박종복 “여성관리자 비율 최고”

키우면 그룹 내 여성 임원이 전체 3분의 1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임원 육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여성 인력을 확대하면 여성 고위직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윤 회장은 이날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룹 차원에서 운영 중인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을 소개했다. 윤 회장은 “그룹 전체적으로 여성 인력을 증용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도 쏟고 있다”며 “여성 인력 확대를 위해 은행은 향후 3년 내 임원 20%, 팀장 30%, 직원 40%까지 확보하라고 지시했고, 다른 계열사는 5년의 시간을 줬다”고 했다. 이어 “여성 임원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팀원 시절부터 다양한 경험을 거쳐야 한다”며 “전 그룹 차원으로 할당량을 배정해 여성 인력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용병 회장은 “1980년대는 남성 우위 사회였다”면서 “여성이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조직의 주연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제도를 만든 것이 신한인 걸포스”라고 말했다. 걸포스는 ‘여성의 힘’이라는 뜻의 그리스어다.

조 회장은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해 중요한 것은 환경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

고 말했다. 그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성 다양성을 추구하는 기업 지배구조를 강조하고 있다”며 “남성 위주의 제도에서 탈피해 여성 인재를 골고루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구체적 방안으로 여성 생애주기에 맞는 성평등 제도를 꼽았다. 그는 “우리금융그룹은 임신부 직원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었고, 육아 휴직자가 업무에 복귀 후 바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의 성평등 제도가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인재 채용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다. 부장급 여성 인력이 13%, 부부장급은 36%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여성 인력의 근속 연수가 은행권 최초로 15.1년을 기록했다”고 했다.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은 “성 편견 없이 모든 직원이 존중받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게 SC그룹의 전략”이라며 “젠더, 국적이나 민족성, 장애, 세대,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 없이 모든 직원이 존중받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 행장은 “모든 직원이 주도적으로 성평등을 위해 노력한다”면서 “특히 상위 직

에서의 균형 있는 성비를 구성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다양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맞춰 여성 임원을 양성하고 조직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소개했다. 박 행장은 “제일은행은 최고 임원 중 한 명이 DNI를 주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현황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인사고과에 반영된다”고 했다.

박 행장은 “여성 임원 비율을 보면 국내 기업 중 제일 높은 수준”이라며 “사내이사는 절반이 여성으로 임원 중 21%이고 여성 지점장은 27%인데, 이 수치는 국내 기

업 가운데 높은 수준이라고 예측한다”고 했다. 다만 동북아시아는 40~50%로 낮은 수준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범근 기자 nova@

나경연 기자 contest@

문수빈 기자 bean@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 좋아요♡
보험, 좋아요♡

KB손해보험 | KB생명보험
LOVE YOURSELF 프로젝트

바쁜 일상 때문에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이
[나를 위한 LOVE YOURSELF 프로젝트]로
바쁘게 지내시길 도와드립니다!
꼭 필요한 보장만 모아 빈틈없이 통합관리해주는 보험

보험은 역시 KB입니다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아이의 미래, 더 밝아질 수 있도록 KB녀녀보험	나와 내 가족, 더 안심할 수 있도록 KB종신보험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KB건강보험	
소중한 내차, 더 안전할 수 있도록 KB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를 쉽고 빠르게 KB간편청구서비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유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하지 않습니다. *기본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기일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장사고 외에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보험계약 전, 자세한 상품내용과 계약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문의 상담전화 1864-9900(2019.07.08) *주식·증권·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콜센터 1544-0114 *생명보험문의 상담전화 1919-02195 (2019-07-09) *주식·증권·명동포구 국제금융로 22 28 KB 금융타워 www.kbfi.co.kr *고객콜센터 1588-9922

KB손해보험 | KB생명보험

한발 다가선 ‘전국민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여전

정부, 특고 고용보험 연내 입법 추진… 14개 직종 우선가입 검토
“사업주 부담 키워 일자리 위협” 반대… 無계약 노동자 배제 논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적용을 위한 입법화가 재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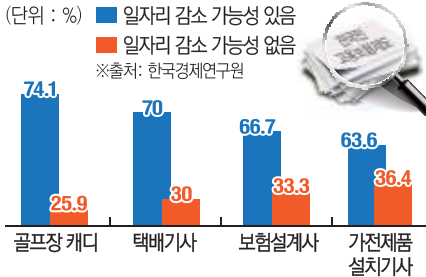
정부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최소화하고, 2025년까지 취업자 2100만 명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한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특고 10명 중 6명은 정부 입법안이 사업주의 부담을 키워 오히려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번 주 중 21대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특고 고용보험 의무 적용 △특고·사업주 실업급여 보험료 공동 부담 △퇴사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보험료 징수체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추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해당 사안이 사업주의 부담과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로 연결되는 부분이기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정부는 소득 기준을 가지고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를 추려 내려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 일자리 변화 전망



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소득기준을 월 70만 원 정도로 하고, 전속성(사업주에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이 비교적 높은 산재보험 적용직종 14개 특고(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고용보험료 징수 체계와 관련해서는 일단 일반 가입자처럼 사업주와 특고가 매월 반반씩 내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용보험 사

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이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될 특고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8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보험설계사·가전제품 설치기사·택배기사·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234명을 대상으로 특고 고용보험 적용 논의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특고 62.8%는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사업주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져 본인들의 일자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신고도 특고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특고의

46.6%가 소득신고가 다른 사회보험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비용이 부담되고, 17.5%는 소득 노출 자체가 꺼려진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보험 밖의 노동자를 위한 실업급여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기금을 보전해준다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대로 정부 입법안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진보당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총연맹은 계약 없이 일하는 특고 노동자 다수를 배제시키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김유진 기자 eugene@



가운 다시 입은 전공의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전공의들이 8일 일제히 업무에 복귀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전공의 1020명을 두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련 의료기관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올 성장률 -1.1% 그쳐… ‘V자 회복’ 어렵다”

KDI, 수정 경제전망 발표

5월 전망보다 1.3%p 하향 조정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 반영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로 5월 전망(0.2%)에서 1.3%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반영한 것으로, 재확산 전 발표된 정부 전망치(0.1%)보다 낮고, 지난달 말 발표된 한국은행 전망치(-1.3%)

보단 높다.

이번 전망의 특징은 하반기 성장률(-1.4%)이 상반기(-0.7%)보다 떨어진다는 것이다. 5월 전망에서 KDI는 성장률이 상반기 -0.2%에서 하반기 0.5%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가 저점에서 단기간에 반등하는 ‘V자 회복’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정구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대 위험요인은 코로나19 추가 확산이다. KDI는 전망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9월부터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했다. 정실장은 “4분기에도 (일일 확진자가) 다시 1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로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렸다”며 “3단계로 진행된다면 성장률은 더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분쟁 추이가 추가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는 올해 역성장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3.5% 성장을 예상했다. 부문별로 민간 소비는 올해 -4.6%에서 내년 소폭 반등(2.7%)하고,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및 반도체 수요 회복으로 올해 4.2%, 내년 4.8%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도 올해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1.1% 증가하고, 내년에는 3.1%로 증가 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도 올해에는 4.2% 감소하지만 내년에는 3.4% 늘어 부분적인 회복을 보일 전망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권, 경복권, 경남권 등 5대 권역에 설치된다. 복지부 2차관 산하에는 보건 의료정책관 산하에 의료인력정책과, 공공보건정책관 산하에 혈액장기정책과가 신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초대 질병청장에 정은경(사진) 현 질병관리본부장, 복지부 2차관에 강도태 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질병관리청 12일 출범… 초대 청장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12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인력은 지금보다 약 42% 늘어난다. 복지부엔 2차관 신설과 함께 1관 3과가 보강된다.

행정안전부와 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질병청 하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질병청은 청·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 규모로 꾸려진

다. 기존 인력(907명)과 비교하면 569명 늘어나며, 재배치를 제외하면 384명이 순증된다.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가 소속기관이 된다. 보건연구원에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의 국립감염병연구소(현 감염병연구소)가 신설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

연구개발 우수 기업 ‘규제 면제’

정부 ‘R&D 샌드박스’ 도입

연구개발(R&D) 우수 추진 기업에 R&D 규제를 일괄 면제해 주는 ‘R&D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산학연 전문가와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시장 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 R&D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현재 정부의 R&D 추진 방식이 관리·통제 위주인 데다 안정적인 과제 중심이어서 연구 효율성과 성과 창출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간 부담금이 많아 대기업 참여 유인이 낮다는 점도 고려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연구개발 우수 기업은 ‘R&D 샌드박스’ 트랙을 적용해 연구 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와 컨소시엄 변경 등에서 자율성을 대폭 확보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시장 변화에도 연구목표 변경, 연구비 비목 변경 등이 제한돼 당초 연구계획을 변경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자율적인 R&D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민간부담 비율도 유연하게 완화할 방침이다.

산업 연관 효과 등을 살펴 사업별·

과제별로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평가방식도 바꾼다. 성과와 실패,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평가방식에서 연구 성과의 질에 따라 3단계(우수, 완료, 불성실수행)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후방 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통합형 R&D도 도입한다. 후방의 중소기업들과 전방의 대·중견기업을 포함해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형 R&D를 신규 과제의 20% 이상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때 대·중견기업의 매칭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대폭 경감해 준다.

정부 R&D와 달리 민간 투자방식으로 기업 R&D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펀드도 연내 16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3년간 총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금 우리 산업은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 시대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에 대응하는 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이라며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장기요양보험료 가구당 1787원 오른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6.09% 오른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1787원 늘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장기요양보험료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료(6.67%)의 11.52%로, 올해(10.25%)보다 16.09%(1.27%포인트) 인상된다. 소득 대비로는 0.79%다. 앞서 경영계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동결을 요구해왔다. 이번 보험료를 인상으로 내년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3211원으로 올해(1만1424원)보다 1787원 증가할 전망이다.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1.37% 인상된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급여가 1.49%, 노인요양시설은 1.28%, 공동생활 가정은 1.32% 등이다. 수가 인상으로 노

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990원에서 7만1900원으로 910원 인상된다. 본인부담률 20% 기준으로 30일(1개월) 요양시설 이용 시 총급여비용은 215만7000원, 본인부담금은 43만1400원이 된다.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2만2400원 늘어나게 된다.

서비스 질 개선과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장기요양 수가 가산제도도 개편된다. 인력 추가배치 시 가산점수가 직종별 0.2점씩 인상되며,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 번째 추가 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이 인상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률도 50%에서 20%로 조정되며,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연말까지 지급 후 일몰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SOVAC 2020 참여방법

- 일 정** 9/1~9/24, 매주 화요일~금요일 오전 10시
- 참여방법** SOVAC 홈페이지 (<https://socialvalueconnect.com>) 또는 YouTube, 네이버TV 'SOVAC' 채널 접속
- 주요행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강연, 토크쇼, 실시간 경연, 대학생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



SOVAC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회문제의
해답을 함께
나누고 키우는

행복플랫폼 SOVAC 2020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사회적 가치 민간 축제 SOVAC 2020!

이미 100여 개가 넘는
파트너사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행복을 더 키워가는 일,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세요!



SOVAC(소셜밸류커넥트)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협력을 키워 나가는 소통의 장입니다.

| SOVAC 2020과 함께하는 Partners |



| SOVAC 2020과 함께하는 Influencers |

Hoon 강성훈 / judy asmr / Zoe's 조에 / 꿀단지PD / 마이맘TV / 무니키친 / 섬마을훈태TV / 세탁설 / 슈가풀 / 신국 / 아롱다롱TV
야신야덕 / 윤터터 / 윤호찌 / 인프제 INFJ / 지능랭가이드 / 코리안브로스 / 팀브라더스 / 풋볼아이 / 형진이의 소소일상 / 회사랑RawFisheater

다급해진 트럼프 “中에 대한 의존 완전히 끊겠다”

대선 다가올수록 ‘反中’ 수위 높여
노동절 브리핑서 ‘경제 단절’ 시사
“뺏긴 일자리 되찾자” 지지층 결집

미국 대선을 향한 초침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2016년 대선 때 대중국 공세로 재미를 보더니 이번엔 아예 경제 관계 단절까지 시사하며 수위를 높였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동절을 맞아 백악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겠다고 밝혔다. 이미 부과하고 있는 고율 관세에 이어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까지 언급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 단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때문에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 그들과 거래를 하지 않으면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것을 디커플링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커플링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단어”라고 강조했다.

디커플링은 한 나라 경제가 특정 국가 혹은 세계 전체의 경기 흐름과 다르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일컫는 경제 용어로, 전문가들은 두 국가 간 무역 거래의 완전한 중단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디커플링 발언에 대해 NYT는 중국과 거래를 끊어 손실을 없앨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일자리 하청을 주는 미국 기업들의 경우, 연방정부와의 거래를 금지시킬 것이라며 대중국 강경 자세를 선포했다. 그는 “중국에 빼앗긴 제조업 일자리와 주요 공급망을 미국으로 되돌리겠다”면서 “미국의 제조업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2016년 대선 때 대중국 무역 적자 해소 공약 등 중국 이슈로 재미를 본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여전히 불균형하다. 3일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7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16억 달러 증가한 283억 달러(약 33조 6000억 원)로 나타났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18만 1000명 이상이 사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중국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는 이러한 자신의 대중 강경 노선을 강조하기 위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겨냥, “바이든이 집권하면 미국을 중국의 전당포로 만들 것”이라면서 “우리 일자리와 경제, 복지를 중국에 넘길 것”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 의지대로라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과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디커플링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상당히 얽혀 있어 상호 의존을 끊어내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완전히 종식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톰 휠러 연구원은 “대선을 앞두고 벌이는 ‘쇼비즈니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엄포가 수사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며 “디커플링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매출의 5%를 중국에서 내고 있는 미국 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동절인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사업을 하지 않으면 거액의 손실을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제면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국, 美 IT 제재에 ‘자체 보안규정’으로 반격

트럼프 틱톡·위챗 등 규제에 “이중잣대”… 새 기준 제시하며 우군 확보 나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인터넷 기업을 글로벌 무대에서 축출하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격에 나섰다. 자체 국제보안기준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조만간 국제보안기준에 대한 중국의 구상을 발표한다. 이 구상은 원래 8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에 관한 세미나에서 발표하려던 것으로, WSJ가 해외 외교관들에게 미리 배포된 해당 구상의 초안 사본을 단독 입수했다.

초안은 “정보 보안의 위협에 대해 세계적인 해결책이 요구되는데, 그러려면 대다수 국가의 바람과 이해관계를 반영한 세계적인 규칙과 표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중국의 국제보안기준

구상은 무역과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 등 기술 기업과 바이트댄스 산하 동영상 공유 앱 ‘틱톡’, 텐센트홀딩스의 ‘위챗’ 등 인기 앱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제재를 강화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이중 잣대를 들이밀어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전개를 방해하려 한다”고 반발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약 1개월 전 ‘청정 네트워크(Clean Network)’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미국 등 글로벌 기업이 사용하는 인터넷 인프라에서 모든 중국 앱과 클라우드 서비스, 통신 시스템, 해저 케이블을 퇴출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중국이 이번엔 내놓으려는 자체 국제보안기준 구상은 바로 이 청정 네트워크에

대항하기 위한 카드인 셈이다. WSJ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각국에 “포괄적이고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방법으로 정보보안을 처리하고,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개방적이고 안전하면서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또 초안은 각국 정부에 대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모든 국가가 각자 인터넷을 완전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국 정부의 ‘사이버 주권’ 비전과 일치한다.

초안은 미국의 청정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나,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중국의 기술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미국에 대항하려는 자세를 반영한다고 WSJ는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코로나에 美 상업용 부동산 ‘텅텅’ 은행, 부동산담보대출 부실 폭증

전분기 대비 31兆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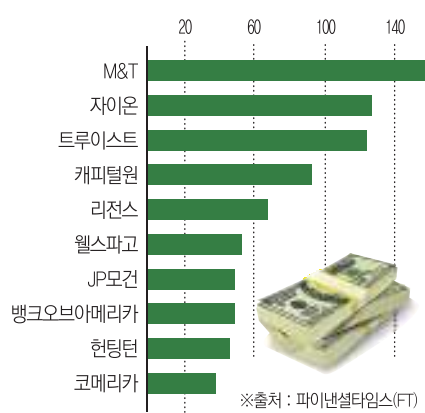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경제 폐쇄 후폭풍이 거세다. 이동 제한과 자택 대기령, 재택근무 등으로 사무실과 호텔, 쇼핑몰 등 상업용 부동산이 텅텅 비면서 미국 대형은행들이 부동산담보대출 부실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부실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미국 10개 은행을 살펴보면, 이들 은행의 부실대출은 전 분기보다 총 62% 늘어났다. 이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 담보 부실대출 규모는 전 분기보다 144% 폭증한 260억 달러(약 31조 원)에 달했다.

모건스탠리는 미국 은행 부문 전체의 부실대출 규모가 2분기에 42%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은행들이 부실대출에 대비해 올해 들어 총 1110억 달러의 자금을 대손충당금에 추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만큼 은행들도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JP모건체이스와뱅크오브아메리카(BOA), 웰스파코 등 자산 규모 기준 미국 4대 은행 중 3곳이 부실대출이 급증한 10개 은행에 포함돼 불안을 더 고조시키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마켓인텔리전스에 따르면 JP모건의 부실대출은 재무건전성의 주요 척도인 핵심자기

美10개 은행 상업용 부동산 부실대출 증가율
(단위 : %, 전분기 대비 기준)



자본의 9%에 이른다. BOA는 그 비율이 13%, 웰스파고는 25%를 각각 기록했다. 오토노머스리서치의 브라이언 포란 지역은행 담당 애널리스트는 “사람들은 부실대출, 특히 상업용 부동산 부문의 대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도시를 살펴보면 텅텅 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사들은 부실대출을 신용등급 ‘CCC’ 이거나 그보다 낮은 등급의 부채로 간주하고 있다.

FT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 경제 폐쇄에 따른 결과가 분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호텔 객실이 비고 쇼핑몰 방문객이 사라지며, 직장인이 집에 머물면서 많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건물주들도 모기지 이자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변효선 기자 hsbun@

〈세계 최대 맥주회사〉

‘승자의 저주’ AB인베브, 16년 만에 수장 바꾼다

대형 M&A로 빚더미… 5년새 60% 주가하락에 CEO 교체 추진

세계 최대 맥주회사인 안호이저부시인 베브(AB인베브)가 16년 만에 최고경영자(CEO)를 새로 들인다.

AB인베브는헤드헌터업체스펜서스튜어트와 함께 내년에 퇴임하는 카를로스 브리토<사진> CEO의 후임 찾기 작업에 돌입했다고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브라질 출신의 브리토 CEO는 16년간 재임하면서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AB인베브를 세계 최대 맥주회사로 키웠다. 그러나 AB인베브는 현재 위기를 타개할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다.

2016년 790억 파운드(약 123조 원)에 영국 사브밀러를 인수하는 등 잇단 대형 M&A로 심각한 부채 부담에 시달려왔기 때문이다. 최근 18개월 사이에 최고재무

책임자(CFO)와 회장이 연달아 교체된 것도 이런 부담에서 비롯됐다.

AB인베브 주가는 사브밀러를 인수하기 전인 2015년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나서 지금까지 60% 이상 하락했다. 6월 말 기준 AB인베브 부채는 874억 달러로, 순이익의 4.8배에 달했다.

다만, AB인베브가 헤드헌터를 통해 외부에서 CEO를 찾는 이유 중 하나는 내부에 마땅한 후보가 없어서다. 현재 후보는 미셸 두커리스 북미 사업부 CEO가 유일하다. 이전에 후보로 거론됐던 데이비드 알메이다 최고전략책임자(CSO)와 페드로 에아프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후임 후보에서 제외된 상태다.

만일 차기 CEO 후보를 찾지 못한다면 브리토가 계속 CEO직을 맡을 것으로 보



퇴임한 데 이어 브리토마저 일선에서 물러나면 글로벌 맥주산업의 통패합을 이끌었던 인물들의 시대가 끝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번스타인리서치는 “회사가 내부 성장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리더십을 바꿀 적합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최혜림 기자 rog@

아시아나 불씨 살아있다… 기반기금 둘러싼 ‘눈치싸움’

추측 무성한 아시아나 M&A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문제를 놓고 여러 추측이 오가는 가운데 오는 11일 기간산업안전기금 운용심의회가 개최된다. 이날 심의회가 사실상 딜이 종료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2조 원 규모의 기반기금 투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이 여전히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면서 어떤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 향방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전기금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는 의원들의 소집일정을 오는 11일로 통보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보통 목요일에 열렸으나, 이번 회의는 이례적으로 금요일로 일정이 잡혔다.

업계에선 이날 장이 마감되는 오후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금지원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산은 관계자는 “기반기금 회의가 열리는 일정에 대해서 원래 정해진 요일이 없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기금운용심의회 관계자는 “날짜만 통보받았지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우선 기금운용심의회가 아시아나항공에

11일 기반기금 심의회 개최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 미정 산은-현산 ‘노딜’ 확정 발표 없어 지원여부 사전 결정 가능성 적어

일각 “현산, 인수 미련 못 버려”

인수가 인하 파격 제안했던 산은 기반기금도 지원 땀 인수 급물살

업계 “노딜 땀 대규모 세금 투입 매각 주체, 노딜 선언 부담될 것”

대한 기금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는 두 가지 여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나는 아시아나항공 M&A 문제가 정리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주주인 금호그룹이 기반기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야 한다. 전자의 요건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앞서 M&A 과정에서 기반기금의 투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에 따르고, 후자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기반기금 요청의 주체는 대주주에 있다고 밝힌 것에 따른다.

문제는 두 가지의 요건이 공식적으로 충족됐느냐다. 금호그룹은 여전히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 종료를 밝히지 않았고, 동시에 기반기금 신청 여부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선 오는 11일 기금운용심의회가 열리기 전 이전에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 회의)에 금호산업이 M&A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고 딜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음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수 기대감으로 유지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발생할 시장 충격을 줄여주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산경장 회의에 대해 “예정된 것이 없고, 과거에도 열린다고 했었지만 실제로 열리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직 산경장 회의가 열리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심

의위의 회의 일정이 잡혔다는 얘기가. 자금지원 결정에 신중한 입장인 기금운용심의회가 M&A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인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지원 여부를 사전에 결정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이날 회의가 열리더라도 기반기금 지원 여부가 나오지 않을 여지도 남았다.

일각에선 HDC현산이 여전히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상황이 악화됐지만 여전히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보도에 나온대로 산업은행이 인수가격을 일정 부분 인하해 주고 전향적으로 기반기금 지원까지 가능해진다면 현대산업개발의 아시

아나항공 인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26일 이동걸 회장과 정몽규 HDC현산 회장의 회동 후 HDC현산이 이메일을 통해 산은에 ‘재실사’를 고수하면서 사실상 계약이 종료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 회장이 제안한 내용도 정 회장의 요구 내용도 확정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다. 엄밀히 말해선 재실사를 요구했을 뿐, M&A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게 HDC현산의 입장이다. 하지만 산은은 이를 계약 파기 의도로 보고 있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실제로 HDC현산의 요구가 맞다면 이번 기금운용심의회가 M&A 계약을 유지한 채 기반기금 투입이 되는지를 논의할 수도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M&A를 종료하지 않고 기반기금을 투입할 가능성은 떨어진다”라고 봤지만, 파격적인 제안을 했을 만큼 M&A 종료를 우선으로 생각한 채권단으로서도 딱 잘라 거절할 제안도 아니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쉽게 나오기 힘든 매물이고 국가 기반 사업이지만 딜이 무산될 경우 대규모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에서 매각 주체들이 쉽게 계약 무산을 선언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사모펀드·DLF 피해 안타까워… 금융사고 엄정 대처”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1년 소회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이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재임기간 중 사모펀드·DLF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모펀드·DLF는 물론 보이스피싱 등 금융환경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금융사고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열린 내부회의서 간부들에게 소회를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DLF·사모펀드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취임 중 기억에 남는 핵심 업무로 코로나19 위기대응을 꼽았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경원 금융정



책실 총괄서기관 경력으로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해 두려움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앞섰다고 “175조원 +@’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실물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재발생시 소방용수(消防用水)를 아끼기보다 인명구조·화재진압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듯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금융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위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가중된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되, 금융권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노력도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위기대응 속에서도 금융혁신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을 병행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권 내 새로운 촉진자 진입 허용, 데이터 산업 육성기반 마련, 규제샌드박스 등 금융권 혁신 노력을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그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에 각별한 노력 경주하겠다”며 “특히, 위기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가계·기업부담 부채증가가 향후 우리 경제 재도약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도모하고 생산적 부문으로의 시중유동성을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 ‘K-뉴딜 지원’ 실천

아문디 그린코리아펀드 가입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이 8일 국내주식형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상품인 ‘NH-아문디 100년 기업 그린코리아펀드’에 가입했다.

이 펀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테마 가운데서도 성장성이 가시화하고 있는 ‘그린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개선과 성장성이 보이는 그린(환경) 테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로, 향후 정부의 뉴딜 정책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5G, 2차전지, 수소·전기차, 풍력 관련 기업 등에 투자할 전망이다.

앞서 농협금융은 전 국민의 K-뉴딜 참여 붐 조성하고 그린·환경 산업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이 펀드에 400억 원의 초기 운용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운용보수의 20%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해 사회공헌활동과 공익사업에 지원한다.

김 회장은 “NH-아문디 자산운용은 국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NH-Amundi 100년 기업 그린코리아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내 최초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투자하는 ‘필승 코리아 펀드’로 검증됐다”며 “전 계열사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주도할 K-뉴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배영훈 NH-아문디 자산운용 대표는 “100년 기업 그린코리아펀드”는 지난 1년간 공들여 준비한 상품으로, 필승 코리아 펀드와 함께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문수빈 기자 bean@

‘고객 자산가+기업고객’ 두 토끼 잡아라

시중銀 ‘복합점포 확대’ 승부수

사모펀드發 WM 입지 줄여 IB 결합 통해 경쟁력 강화

은행권이 개인 고객 자산가와 기업 고객을 한번에 유치할 수 있는 ‘복합점포 개설’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객자산가들이 법인과 개인 서비스를 동시에 받으려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연이어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입지가 약해진 자산관리(WM)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KB금융그룹은 7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 ‘광주PB센터 자산관리(WM)복합점포’를 새롭게 열었다. 이곳은 KB금융그룹의 두 번째 ‘BIB(Branch In Branch)형 PB센터’다. ‘BIB형 PB센터’는 기존 ‘PB센터 WM복합점포’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질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반영업점 WM복합점포’에서 제공하던 기업금융 및 기업대출 업무까지 이용할 수 있다.

WM복합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은행과 증권을 따로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증권 업무를 원 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 모두의 상품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어 고객 입맛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 PB들이 제공하는 부동산·세무·자산관리 등의 전문적인 상담을 ‘공동상담실’에서 한 번에 제공한다.

김영길 KB금융그룹 WM부문장은 “은행·증권 WM복합점포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편리하면 서도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강남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PB(프라이빗 뱅킹)와 IB(투자은행)을 결합한 ‘PIB 센터’를 열었다. 최근 예는 서울 중구에 2호점을 열고 영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PIB센터는 기업이 고객을 대상으로 법인회계·세무 등 법인 컨설팅을 비롯한 기업금융 서비스와 개인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쉽게 말해 법인과 개인 자산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PB고객 다수가 고객자산가이면서 중소기업 운영을 하는 CEO라는 점에 착안해 해당 지점을 열게 됐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서울 강남권에 PB와 기업투자금융(CIB)을 결합한 PCIB 점포를 개설한다. PCIB는 PB 업무와 기업투자금융(CIB)을 결합한 모델이다. 우리은행은 금융자산 30억 원 이상인 개인·법인고객을 PCIB 대상군으로 설정했다. 기존 자산관리 VVIP 기준(10억원 이상)보다 높여 잡았다.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도 고객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PCIB는 지난 3월 권광석 행장이 취임한 이후 급물살을 탔다. 올 상반기 중에는 행장 직속 미래금융디자인부가 PCIB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신사업으로 검토했다. 지난 7월 조직개편에선 자산관리그룹 산하에 PCIB 전담조직을 추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WM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상태”라며 “WM 부문에 기업금융을 결합해 안정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 특화점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씨티銀 ‘FX오토바이셀’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

한국씨티은행이 고객이 직접 지정환 환율에 도달하면 이를 알아서 환전해주는 ‘FX오토바이셀’ 서비스를 모바일 앱에서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FX오토바이셀 서비스는 한국씨티은행에 원화·외화 입출금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실제 환율이 고객이 미리 설정한 환율과 같아질 때 지정환 금액만큼 자동으로 외화를 사거나 팔아주는 서비스다.

환전 가능한 통화는 미 달러, 엔화,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화, 뉴질랜드 달러 등 총 8개 통화다.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게 50% 환율 우대 적용한다.

문수빈 기자 bean@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플라스틱 생수병을
종이로 바꿀 수 있을까?



페플라스틱 원단을 활용한 의류 잡화 브랜드
뭉세누 / 박준범 대표



청년 창작가와 소상공인이 공생하는 디자인 기업
000간 / 신윤예 대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종이팩 생수 브랜드
DE Studio / 이창현, 오승범 대표

↑
페플라스틱을 패션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

QR코드를 찍어 [마지막승부]
Full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
청년 작가와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사회의 문제는 줄이고 청년의 일자리는 늘리는 창업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하나의 창업이 성공하면
또 하나의 일자리가 생기고

하나의 소셜벤처가 성장하면
또 하나의 사회 문제가 해결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사회혁신창업가들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소셜벤처아카데미 소셜벤처창업가 육성을 위한 11주 코칭 프로그램 **하나파워온챌린지** 다양한 단계의 사회혁신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ESS→리튬 추출’ 배터리 생태계 조성 맞손

‘K-배터리 동맹’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작으로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차례로 회동하면서 미래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공유한 지 4개월 만에 배터리 생태계 조성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히면서 K-배터리 동맹의 실질적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

현대·기아차와 SK이노베이션은 8일 기존에 배터리 공급 중심으로 이뤄졌던 협업 체계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리튬·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판매 △배터리 관리 서비스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등 전기차 배터리 관련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모빌리티-배터리사 간 협력 체계를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기아차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생태계 조성에 선제적으로 나선 데는 미래 전기차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전기차 생애 전 과정에서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양사는 우선 ‘니로 EV’에 차량에 탑재되는 배터리팩을 수거해 검증하는 실증 협

‘큰그림’ 그린 현대차·SK
제품 공급 넘어 선순환 구조 마련
생산·대여·관리·재사용 아울러
니로EV 배터리 수거해 실증 착수

전기차 성능 강화
현대차, 2025년 세계 3위 목표
삼성과 전장용 반도체·인공지능
LG와 디스플레이 등 추가 협력

력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차량용으로 더는 사용하기 어려운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터리 재사용’, 차량 배터리를 니켈, 코발트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금속을 추출하는 ‘배터리 재활용’ 등 전기차 배터리의 부가가치와 친환경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이 같은 협업은 전기차의 시장 규모를 확대할 뿐 아니라 친환경성 증대, 회사의 수익성 향상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선(오른쪽) 현대차 수석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7월 충남 서산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서 악수하고 있다.

환경부와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차 폐배터리는 올해 1000개 수준이지만 2040년이 되면 누적 발생량이 약 245만 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양사의 배터리 재활용은 친환경차인 전기차에서 나온 배터리가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역설적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셈이다.

환경적인 이유 외에도 사용 연한이 다한 폐배터리라도 1kWh당 100달러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폐배터리 재활용 시 전기차 배터리 생산 비용을 30~60%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양사가 배터리 생태계 구축을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시장조사업체 네비건트 리서치에 따르면 중고 배터리 거래가 점진적으로 활성화

될 경우 관련 시장 규모는 2035년 30억 달러(약 3조 36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기아차는 배터리 생태계 조성과 함께 배터리 3사와 함께 전기차 성능 강화라는 본연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현대차는 2025년 전기차 56만 대를 판매해 수소 전기차 포함 세계 3위권 업체로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아차는 지난해 2.1%였던 세계 전기차 점유율을 2025년에 6.6%까지 끌어 올릴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배터리 기업들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LG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리튬이온배터리 기술을 넘어 향후 전고체 전지, 리튬 황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기아차와 삼성은 다양한 전장 기술과 자동차용 반도체,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와는 디스플레이 패널과 전장장비를, SK와는 5G(5세대 이동통신), 빅데이터, ICT(정보통신기술) 자율주행 분야에서 추가적인 협력이 기대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쇼핑축제 한 달 일찍... 10월부터 ‘온택트’ 블랙프라이데이

美 소매업체 11월 대목엔 휴점
코로나 여파 쇼핑객 분산 노력
전자업계 온라인 마케팅 집중

미국 최대 쇼핑 축제인 ‘블랙프라이데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탓에 10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쇼핑객을 분산시키면서도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온택트 블랙프라이데이가 늘어나면서 국내 가전·전자기업들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코트라가 분석한 ‘코로나19,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어떻게 바꿀까’ 보

고서에 따르면 월마트, 타깃, 베스트바이, 베드베스앤비온드, J.C.페니, 디스스포르팅굿즈 등 미국 대형 소매업체들은 추수감사절 당일(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올해는 11월 26일) 휴점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통상 추수감사절 당일 오후부터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매장으로 인파를 끌어들이는 것에 부담을 느낀 소매업체들이 이날 휴점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올해 블랙프라이데이는 10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쇼핑객을 분산시키면서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최대한 세일 기간을 연장해 소비자의 충분한 연말 쇼핑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르면 10월 말 핼러윈 데이(10월 31일)가 끝나는 대로 연말 세일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세일 품목이 대거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가전·전자 업계도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홈페이지와 아마존 등을 통해 8K QLED TV와 4K QLED TV를 판매한 바 있다. 삼성전자 TV는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가장 많이 팔린 제품 가운데 하나로 꼽혔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만 30만 대 가까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올해도 이들 온라인 채널

을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 쇼핑사이트로 영역을 넓힐 전망이다.

한편,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11월 11일)에서도 온라인 시장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중국 최대 쇼핑몰 티몰(Tmall)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제품 매출액은 전년 대비 73% 증가해 일본과 미국에 이어 거래액 순위 3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티몰 내 휴대폰 판매순위 상위 10위 가운데 7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낮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도 광군제 기간 한정 판매를 진행한 갤럭시 폴드가 큰 인기를 끌었다. 올해도 ‘갤럭시Z폴드’와 ‘갤럭시Z폴드2’ 등 삼성 폴더블폰의 선전이 기대된다.

권태성 기자 tskwon@



‘갤럭시 버즈’ 휠라 액세서리 출시
삼성전자는 휠라(FILA)와 협업해 ‘갤럭시 버즈 라이브 휠라 액세서리 패키지’를 판매한다. 액세서리는 휠라 로고 케이스와 신발 박스에서 모티브를 얻은 스케이 케이스, 휠라 스니커즈 모양 키링이다. 가격은 20만9000원. 사진제공 삼성전자

르노삼성 민노총 가입 투표
본사 ‘물량 배정’ 악영향 우려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9~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입 투표를 진행한다. 가입이 성사되면 사 측을 상대로 한 투쟁 강도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차 노조 집행부는 조직 형태를 민주노총 산하의 산업별 노조로 전환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한다. 지금의 기업노조 형태에서 벗어나 조합원 약 18만 명이 소속된 금속노조에 가입하려는 시도다. 집행부는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사 측에 대항할 힘을 갖추기 위해 민주노총 가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 가입이 성사되려면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해 3분의 2(66.7%)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노조의 투쟁 동력 강화가 물량 배정을 결정하는 르노 그룹 본사의 판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르노 본사는 로그 위탁 생산 계약이 끝나기 전 소형 SUV XM3의 유럽 물량 등 후속 물량을 배정하려 했지만, 지난해 초 노사갈등이 심해지자 이를 보류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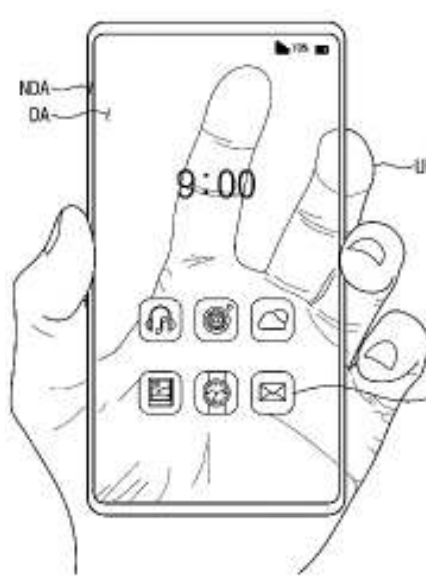
삼성, 폴더블 다음은 ‘투명폰’ 美 특허 등록

빛 투과하는 OLED 장치
세계 지재권사무소 출원
LG·소니 관련 특허 취득

스마트폰 업계에서 차기 디스플레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이 ‘투명 스마트폰’과 관련한 기술을 개발 중이다. 만일 상용화가 된다면 스마트폰뿐 아니라 TV, 모니터, AR(증강현실) 등 다른 전자 제품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8일 전자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1월 투명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미국특허청(USPTO)과 세계지재권사무소(WIPO)에 출원했다. 이 특허는 지난달 27일 USPTO의 승인을 받으며 공표됐다.

특허 문서(사진)에 담긴 스마트폰 이미지에선 투명한 디스플레이 너머로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사용자의 손이 보인다. 좁은 베젤 디자인에 패널로는 빛을 투과시키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가 탑재됐다. 기



존 LCD 디스플레이보다 낮은 전력 소비, 고휘도, 빠른 응답시간이 특징이다. 특허문서에는 디스플레이 배치 및 움직임, 인쇄 회로 기판 등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은 지금까지 사이니지 등 B2B(기업 간 거래) 제품에 주로 탑재됐다. 가격과 수율 면에서 가정용 제

품에 적용할 만큼 상용화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여러 업체가 투명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스마트폰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상용화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폴더블·롤러블 등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경쟁이 본격화한 상태에서, ‘포스트 폴더블’을 이끌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일본 소니는 2018년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관련한 특허를 취득했고, LG전자는 지난해 투명 디스플레이와 폴더블 형태가 합쳐진 스마트폰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 LG전자가 출원한 특허의 경우 전체 스마트폰 화면 중 배터리 등을 탑재한 부분은 불투명하고, 접거나 뺐을 때 보이는 양쪽 화면이 투명하다.

스마트폰에 투명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 상용화가 된다면, 모니터나 증강현실(AR) 등 다양한 B2C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량 인포테인먼트 등 전장 부문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우리 기자 we1228@

LG전자 소프트웨어 시험소
기능안전 국제시험기관 인증

LG전자가 소프트웨어(SW) 시험 분야를 넓히며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지위를 높였다.

LG전자는 산하 SW공인시험소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소프트웨어의 기능 안전(IEC 61508-3) 분야를 시험할 수 있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8일 밝혔다.

국제표준규격 IEC 61508-3은 이동형 로봇을 포함한 전자·전기 제품에서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를 요구한다.

특히 주행 기능을 탑재한 이동형 로봇은 움직일 때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설계돼야 하는데, 국제표준규격 IEC 61508-3은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 안전 시험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SW공인시험소는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소프트웨어 품질측정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국내 민간기업 중에서 소프트웨어의 품질측정(ISO/IEC 25023)과 기능 안전(IEC 61508-3)을 국제표준규격에 따라 공인 시험할 수 있는 곳은 LG전자가 유일하다.

노우리 기자 we1228@



세련된 디자인 도시형 SUV 르노삼성 'XM3' 흥행 신기록

출시 넉달 만에 2.4만대 판매
세단·SUV 아우르는 외관에
동급 대비 고급 내장재 마감

과거 SUV의 구매 요인은 야외 활동을 위한 넓은 공간 활용성과 힘 있는 주행 성능에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도심 주행용 또는 출퇴근용 차량으로 SUV를 구매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며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도 소비자들이 SUV를 구매할 때 고려하는 중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8일 차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출시 이후 주목을 받은 르노삼성자동차의 XM3가 독특한 디자인을 앞세워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XM3는 출시 이후 4개월 연속 월 판매량 5000대를 넘겼고, 7월까지 누적 판매 대수 2만4161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산 소형 SUV가 세운 흥행 신기록이다.

XM3의 인기에는 눈길을 사로잡는 프리미엄 디자인의 역할이 컸다. 실제로 르노삼성차가 매장을 방문한 XM3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2.8%가 XM3의 구매 요인으로 디자인을 꼽았다.

XM3는 SUV와 세단의 감성을 모두 아우르는 독특한 외관으로 출시 직후 주목을 받았다. 세단 특유의 부드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자랑하면서도, 지상고를 높이고 휠 크기를 키워

SUV다운 역동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드러냈다. 여기에 동급에서 가장 낮은 1570mm의 차체 높이와 대비되는 186mm의 최저 지상고를 조화롭게 적용해 세단과 SUV 두 가지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완성했다.

또한, XM3의 전면부 디자인은 C자형 LED 주간 주행등으로 르노삼성차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도 LED 퓨어 비전 헤드라이트를 함께 적용해 우수한 시인성은 물론 세련된 눈빛까지 장착했다. 후면 디자인은 해치백 타입의 독특한 트렁크 라인을 채택했고, 루프 라인은 패스트백 스타일로 뎀시 있게 떨어지도록 설계해 완벽한 비율을 완성했다.

실내에도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소프트 폼 소재를 적용해 동급에서는 볼 수 없는 고급스러움을 선사한다. 대시보드에는 유려한 물결 문양을 적용해 정교함을 높였고, 실내를 은은하게 밝혀주는 엠비언트 라이트가 조화를 이뤄 더 세련된 실내 분위기를 조성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XM3에 10.25인치 맵 인(Map-in) 클러스터와 9.3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더 편리하게 인포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이용자들이 주행 중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K-태양광, 탄소인증제로 빛 본다

국내 모듈 시장 판도 변화
제조 전 과정 탄소배출량 합산
정부, 입찰 인센티브 등 차등화
'저가' 중국산 공세 주춤 예상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저가 중국산 제품이 범람했던 국내 태양광 시장의 판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탄소 배출량 저감이 시장 진입에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태양광 업체의 한국 시장 공략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신청을 최근 접수했고 LG전자도 검증 신청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배출량 검증 신청을 했다고 바로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니고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입찰할 때 가점과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이 있어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이 검증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로,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배출량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7월 이 제도의 시행을 발표했다.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탄소인증제가 시행되면 내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태양광 시장이다.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모듈 사용 비중은 △2016년 28% △2017년 26.5% △2018년 27.5% △2019년 21.3%를 기록했다. 국내 태양광 시장의 성장률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산 제품이 20%대의 비중을 유지한다는 것은 중국 기업들의 성장을 의미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중국산 태양광 모듈 수입액은 2억410

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 증가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탄소 배출량 기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춘 국내 업체들이 인센티브를 획득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선정 입찰 시장과 정부 보급 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특전을 적용할 계획이다.

태양광 관련 대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저가로 치고 올라온 중국기업들이 이제는 탄소인증제에 맞춰 제품을 만들면서 나온 탄소를 측정해야 하는데 (탄소배출량이 높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업계 전반적으로 이번 제도에 대해 찬성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최근 태양광 소재·부품에서 잇따라 철수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제도의 도입 취지가 저탄소제품 확대인 만큼 정부에서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진 기자 eugene@

장애인고용 30년, 함께하는 도약!

2020년 공단 창립 30주년과 장애인고용 법제정 30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장애인고용 서비스를 더 성장시키고, 고객중심의 전문기관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韓, 조선 수주량 2개월 연속 세계 1위

'주력 선종' 가스선 계약 재개 효과
러시아 등 대형 프로젝트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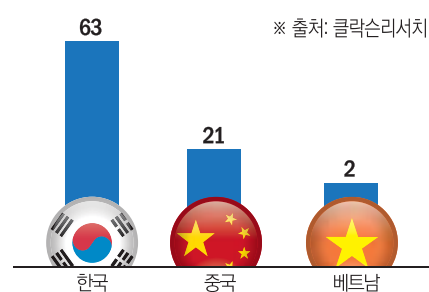
우리나라 조선이 글로벌 선박 수주 시장에서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8일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처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86만CGT(표준선환산톤수), 36척이다.

국가별 수주량은 우리나라가 63만 CGT(23척·73%)를 수주하며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에 머무른 중국을(21만CGT·12척)를 3배 차이로 따돌린 것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상반기 극심한 수주절벽을 겪었으나 6월 이후 주력 선종인 LNG선, VLEC 등 가스선 발주가 재개되면서 수주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이후부터는 모잠비크, 러시아 등 대형 LNG 프로젝트 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8월 글로벌 조선 수주 순위
(단위: 만 CGT)



덧붙였다.

다만, 지난달 누계 기준 글로벌 수주는 812만CGT로 전년 같은 기간 1747만 CGT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편 지난달 전 세계 수주잔량은 7월 말 대비 소폭 1% 감소한 6919만CGT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1월 6806만CGT를 기록한 이후 최저지이다.

국가별 수주잔량은 중국 2547만CGT(37%)에 이어 한국 1915만CGT(28%), 일본 934만CGT(14%) 순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한샘 “스마트홈·스마트시티 기업으로 도약”

‘창립 50돌’ 중장기 로드맵

한샘이 9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미래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포했다.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집과 도시를 설계해 미래 주거환경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이를 통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8일 밝혔다.

한샘은 지난 1970년 23㎡(7평) 남짓한 매장과 비닐하우스 공장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현대식 입식 부엌을 보급하며 부엌을 가사 노동의 공간에서 생활·여가의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데 앞장섰다.

1997년에는 부엌 회사에서 본격적인 가구 회사로 확장해 나가면서 ‘가구’가 아닌 ‘공간’을 팔기 시작했다. 소파와 장, 테이블

1970년 비닐하우스 공장서 시작 국내 최고 홈인테리어 기업 성장 가전·IT기술 융합 리모델링 사업 매출 10조 원 ‘글로벌 한샘’ 목표

블을 모두 합친 ‘거실 상품’을 선보이고, 매장은 침실과 거실을 통째로 꾸며 공간 전체를 패키지로 판매하면서다.

2000년대에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인테리어 시공에 자동차 공정의 일관 생산 시스템을 적용해 주거 공간 창출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했다. 상담에서 설계, 시공, 애프터서비스까지의 전 과정을 일원화했고, 부엌과 욕실, 창호, 마루, 도어 등을 한 데 묶어 규격화



집 전체 공사 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줄이고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영 시스템도 갖췄다. 한샘은 본사와 공장, 수백 개의 유통 채널과 수천여 명의 시공요원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는 ERP 시스템(전사적 자원관리)을 도입했다. 또한 시공 좌석제 도입(전국 단위 항시 시공망 구축)과 공급망 관리(SCM·생산 관

된 패키지 상품도 만들었다. 이렇게 탄생한 ‘한샘 리하우스 패키지’ 상품은 뛰어난 주거 편리성과 디자인 완성도는 물론, 한 달까지도 걸렸던

리) 시스템, AS 통합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원가 절감과 품질·물류·디자인을 혁신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샘은 주거공간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분야마다 항상 국내 1위였다. 부엌가구 부문 업계 1위(1986년)에 올랐고, 가구 인테리어 시장은 사업 개시 후 4년만인 2001년 1위를 차지했다. 2013년에는 가구 업계 최초로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했으며, 이후 4년만인 2017년에는 매출 2조 원을 달성했다.

한샘은 50주년을 맞아 디지털 홈 인테리어 사업의 본격화를 통해 주거환경 부문에서 세계 최강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세운 상태다.

50년간 쌓아온 주거환경에 대한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리하우스 사업에 디

지털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을 결합해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고, 글로벌 한샘의 도전 기반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한샘은 이를 바탕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가전과 IT를 기술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미래 주거환경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미래 50년은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를 실현하며 글로벌 10대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강승수(사진) 한샘 회장은 “지난 50년간 한샘은 고객의 주거 환경이 좀더 나은 곳으로 바뀌어져 나가고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미래 50년은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 인류 발전에 공헌한다’는 창업 정신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LG U+, 세계 첫 ‘유심 없는 통신 모듈’

반도체 이스라엘, 국내 통신 모듈 개발 전문 회사인 ‘엔티모아’, SIM 및 보안기술 분야의 글로벌 회사 ‘G&D’와 함께 USIM 내장 기술 ‘iUICC’ 기반의 통신 모듈을 개발하고 서비스 인증을 마쳤다. iUICC는 SIM을 디바이스에서 음성·데이터 신호처리를 담당하는 통신 칩셋 기능으로 구현한 기술이다. SIM은 통신 서비스에서 가입자 인증, 요금 부과 등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저장한 소형 메모리 카드다.

LG유플러스는 국내외 통신 개발사와 손잡고 심(SIM)카드 없는 통신 기술 ‘iUICC’에 대한 상용화 인증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소니 그룹 통신 칩셋 개발 전문 계열사 ‘소니 반도체 이스라엘’, 국내 통신 모듈 개발 전문 회사인 ‘엔티모아’, SIM 및 보안기술 분야의 글로벌 회사 ‘G&D’와 함께 USIM 내장 기술 ‘iUICC’ 기반의 통신 모듈을 개발하고 서비스 인증을 마쳤다. iUICC는 SIM을 디바이스에서 음성·데이터 신호처리를 담당하는 통신 칩셋 기능으로 구현한 기술이다. SIM은 통신 서비스에서 가입자 인증, 요금 부과 등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저장한 소형 메모리 카드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출판 워크숍’ 소상공인연합회에 시정명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출판 워크숍’ 등 논란을 일으킨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보조금 일부를 환수 조치했다.

8일 중기부는 소공연에 시정명령을 통보했고, 배동욱 소공연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소공연을 특별점검했다. 6월 말 강원도 평창 한 호텔에서 개최한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에서 걸그룹을 초청해 공연을 즐긴 게 발단이였다. 배 회장 취임 뒤 가족이 운영하는 화환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문제와 관련해 소공연 노동조합이 배 회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도 특별점검의 이유가 됐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은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

중기부, 보조금 일부 환수 배동욱 회장엔 ‘엄중 경고’ 노조 “회장 즉각 사퇴해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에 근거해 중기부는 소공연에 시정 명령을 내렸고, 배 회장에 경고 조치를 했다. 보조금으로 구매한 도서를 워크숍 현장에서 판매해 수입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는 금액을 환수 조치했다.

중기부가 배 회장의 해임이나 연합회의 해산을 명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풀이된다. 첫 번째는 소공연 조직의 자립과 존립 능력이다. 소공연 노조는 지난달 말 임시총회를 열어 배 회장의 임원 해임(탄핵) 안건을 처리하려다 코로나 사태로 연기했다. 이렇듯 내부에서 충분히 배 회장에 대한 불신임과 그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자율적 운영 역량에 무게를 두고 봤다”며 “해임이나 해산은 조직이 자립할 능

력이 없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배 회장의 해임이나 소공연의 해산을 명할 시 중기부가 행정소송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서다. 소공연은 중기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고, 관리 감독을 받고 있긴 하지만 성격은 민간 법정 단체다. 이 때문에 중기부로서는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인 근거가 확보돼야 ‘마지막 카드’인 해임이나 해산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해임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만큼 계속 예의주시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공연 노조는 성명을 내고 배 회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노조는 “중기부의 이번 조치는 정부 부처로서 현재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배동욱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사상 초유의 ‘엄중 경고’를 받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삼성전자, 9년 연속 ‘동반성장’ 모범 35개 기업, 中企와 상생협력 ‘최우수’

동반위 ‘동반성장지수 발표’

두산·롯데百 등 61곳은 ‘우수’

공정협약 불참여 7곳은 ‘미흡’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35개 기업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8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추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다. 지난 2011년부터 동반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 공표하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공표 시점이 늦춰졌다.

평가 결과 공표 대상인 200개 기업 중 ‘최우수’는 35개사다. 또한 ‘우수’ 61개사, ‘양호’ 67개사, ‘보통’ 23개사, ‘미흡’ 7개사 등이다.

‘최우수’ 등급 기업은 기아자동차, 네이버, 농심, 대림산업, 대상, 더페이스샵,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전자, 삼성SDS, 세메스, 유한킴벌리, 제일기획, 포스코, 풀무원식품,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현대트랜시스, CJ제일제당, GS리테일(GS25),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이다.

지난 2012년 처음으로 동반성장지수를 공표한 이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으로는 삼성전자(9년), SK텔레콤·SK종합화학(이상 8년), 기아자동차(7년), 현대트랜시스,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SK주식회사(이상 6년), 유한킴벌리, CJ제일제당, LG화학(이상 5년) 등이 있다.

동반위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지표 설정 등을 통해 업종별 평가체계의 유·불리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건설, 식품 등에 집중됐던 최우수 등급 기업이 가맹업종(더페이스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별 등급 공표

★★★★★ 최우수(35개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CJ제일제당, KT, LG전자, SK주식회사 등
★★★★ 우수(61개사)
두산,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아모레퍼시픽, 코웨이, 호텔신라 등
★★★ 양호(67개사)
대한항공(항공우주), 매일유업, 삼성중공업, 카카오, 휴맥스, KCC건설 등
★★ 보통(23개사)
금호산업, 롯데마트, 불보그룹코리아, 서울반도체, 오비맥주, 한솔섬유 등
★ 미흡(7개사)
서원유통, 심텍,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에코플라스틱, 영풍전자,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 타타대우상용차

샵)과 광고업종(제일기획)에서도 최초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추진 중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프로그램 ‘자살한 기업’에 참여한 기업(기아차, 네이버,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도 최우수 기업에 선정돼 상생 문화가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짚었다.

반면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7개사는 ‘미흡’ 등급을 부여받았다. 해당사는 서원유통, 심텍,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에코플라스틱, 영풍전자,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 타타대우상용차 등이다.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평가에 참여한 대기업 185개사 중 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31개사로 전체의 16.8%를 차지한다. 더페이스샵과 대림산업은 양호에서 최우수로, 한샘과 한화, CJ올리브영은 보통에서 우수로, 서원이화는 미흡에서 양호로 각각 2단계 상승했다. 반면 롯데마트는 우수에서 보통으로 2단계 하락했다.

이번 결과는 동반위가 ‘동반성장 종합평가’ 체제로 개편한 뒤 진행된 첫 평가다. 지난 2018년 53차 회의에서 동반위는 업종별 대기업 실적평가제 도입, 체감도조사 효율화 등을 반영기로 결정했다. 동반위는 중기부와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이다원 기자 leedw@

KB 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업 계 최 초 맞 춤 형 구 독 서 비 스

월 1만 원으로 개미지옥에서 탈출하는 법

“ 친구도, 유튜브도, 찌라시도 따라가지 마라! ”



소액 투자자를 위한 업계 최초의
맞춤형 구독 서비스

KB증권 프라임클럽 오픈

오직 당신을 위한 맞춤형 리포트가 옵니다
실시간 투자 정보는 물론 자산 관리를 위한 전문 PB 상담까지
첫 이용 고객 3개월 구독료 무료 혜택 놓치지 마세요
*3개월 이후 구독료 월 1만원, 자세한 사항은 프라임 센터(1566-0055),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able,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1791호(2020년 4월 20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HTS, 홈페이지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0.1273%+2,000원 / 모바일 0.1973% 일률적용 합니다.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은행연계/비대면계좌) HTS, 홈페이지 0.015% / 모바일 0.12% 일률적용 합니다.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투자성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의결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KB 증권**

🍞 무료배달 🍹 가격인하... 프랜차이즈 ‘생존 경쟁’

정부가 수도권 지역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하자 베이커리와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업체가 무료 배달 및 배달 강화, 할인 프로모션 등 공세에 나서고 있다.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내부 취식 금지 업종에 기존의 커피전문점에 이어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빙수점 등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급감한 매출을 메꾸기 위한 자구책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13일까지 주말에 해피오더로 1만2000원 이상 주문하는 고객에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피포인트 5%도 적립해준다. 던킨은 사전에 1만 원 이상의 제품을 주문하고 매장에서 즉시 받아가는 고객에 대해 5000원을 할인해준다. 5000원 이상의 제품을 픽

업주문하는 고객에게는 즉시 2000원 할인하는 행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샌드위치 전문점 ‘에그슬럿’ 역시 13일까지 해피오더로 1만5000원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제품을 배달받을 수 있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프리미엄 제과점 ‘패션5’도 이달 말까지 무료배송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GRS의 노점전문점 크리스피크림도 최근 제품을 배달해주는 자사 전용 ‘롯데잇츠앱’을 선보였다. 매일 5일·15일·25일을 잇츠데이로 지정해 롯데GRS의 외식 브랜드의 할인 및 증정 쿠폰 등을 롯데잇츠 앱에서만 제공하는 자사 앱 할인 이벤트를 통해, 오리지널 클레이즈드 하프 더즌 싱글세트와 같은 할인 메뉴가 약

거리두기 연장에 자구책 마련
파리바게뜨, 주말 배송비 0원

뚜레쥬르 ‘쿠팡이츠’ 배달 할인
커피전문점, 가격↓사이즈↑

33% 할인된 8900원에 판매된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배달의민족, 요기요에만 입점해있던 배달 서비스 채널을 ‘쿠팡이츠’까지 확대했다. 쿠팡이츠 입점을 기념해 14~20일까지 쿠팡이츠에서 뚜레쥬르 제품 1만2000원 이상을 구매하면 6000원을 할인해주는 프로모션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뚜레쥬르는 추석을 앞두고 ‘추석선

물 예약 픽업서비스’도 개시했다. 정부가 추석연휴에 통행료 인상 등 이동 최소화를 주문하면서 고향 방문이 줄어드는 대신 선물 배송이 늘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자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추석 선물을 예약·결제하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미리 지정한 매장에서 선물을 픽업할 수 있다. 최대 7000원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도 할인행사에 나서고 있다.

할리스커피는 아메리카노를 4100원에서 3000원으로, 카페라떼를 4600원에서 3500원으로 각각 가격을 내렸다. 커피빈은 13일까지 고객들에게 무료 사이즈업 혜택을 제공한다. 드라이브스루(DT)제조 음료를 2잔 이상 구매하면 마카롱 1개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폴바셋은 9월 한 달 동안 1만 원 이상 비대면 주문과 고객에게 적립혜택을 준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매장 내부 취식이 어려워지자 e쿠폰 유효기간을 두달 연장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0일 만료 예정인 e쿠폰이 60일씩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적용 대상은 △생일 축하 △별 적립 △BOGO 쿠폰을 포함한 e쿠폰 전체다.

카페형 베이커리 가맹점 운영 관계자는 “배달 쿠폰을 뿌리면 평소에 10건 들어오던 주문이 20건으로 늘긴 한다”면서도 “배달 수수료를 떼어가기 때문에 눈에 띄게 매출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코로나에 막힌 속 탄산으로 뽐

올 상반기 콜라·사이다 매출 12%·4% 늘어... 음식배달 증가도 한몫

올 상반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야외 활동 감소에도 불구하고 탄산음료시장이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식배달이 늘면서 탄산음료를 함께 구매하는 소비가 늘어난 데다 탄산음료가 코로나로 인한 답답함을 풀어주는 청량감이 있기 때문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8일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사이다, 콜라의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 매출은 각 1510억 원, 27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 12% 성장했다. 탄산수와 에너지음료 매출도 각각 494억 원, 11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9%, 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스가 전년 대비 7.4% 시장이 줄어든 것을 비롯해 스포츠음료 12.8%, RTD커피가 0.2%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탄산음료 부문의 매출 상승 기여에 배달음식의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소비자들 대표 배달음식인 치킨, 피자, 족발 등을 먹을 때 탄산음료를 함께 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음료 전문점에서 탄산음료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흔치 않고, 기능성 음료 등과 비교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도 탄산음료 부문의 매출을 올렸다는 평가다.



롯데칠성음료는 탄산음료의 성장세를 이끌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강화 및 제품 확대에 나서고 있다. 칠성사이다는 올해 출시 70주년을 맞아 글로벌 슈퍼스타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캐스팅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탄산수 브랜드 ‘트레비’는 300ml~1.2l로 용량을 다변화했으며, ‘핫식스’는 ‘더 킹’ 제품군 확대에 나섰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음료 시장을 이끈 탄산이 들어간 음료의 인기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면서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탄산을 활용한 음료 제품군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집밥 고민 줄여주는 ‘그리팅’ 추석 선물세트 현대그린푸드는 추석을 맞아 맞춤형 케어푸드 브랜드 ‘그리팅’의 인기 제품으로 구성된 추석 선물세트 2종을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선물세트는 연잎오겹수육(300g)·홍시 버섯불고기(300g)·닭다리살구이(300g), 고추장 닭구이(275g) 등 4종으로 구성된 ‘그리팅 반찬 세트(5만5,000원)’와 해초 전복죽(333g)과 황태 귀리죽(333g)이 각각 2개씩, 홍시 버섯불고기(450g) 1개가 포함된 ‘그리팅 죽 세트(5만 원)’ 등 2종이다. 29일까지 압구정본점·무역센터점 등 전국 15개 현대백화점 식품관 및 온라인몰(더현대닷컴·현대H몰)에서 판매된다. 사진제공 현대그린푸드

외출 안하니 집 꾸민다... 백화점, 명품가구 모시기

신세계百貨, 왕실 침대 ‘히프노스’
갤러리아百貨, 덴마크 거장 ‘핀울’

주요 백화점들이 연이어 명품 가구 브랜드를 유치해 고객몰이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 꾸미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도 작용했다. 특히 고가 제품 구매는 대부분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오프라인에서 주로 이뤄지는 만큼 매장 집객 효과에도 탁월하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백화점들의 명품 가구 브랜드 판매에 적극적이다. ‘가구의 하이엔드 명품’으로 불리는 ‘폴트로나프라우’와 모더니즘 가구의 상징으로 꼽히는 ‘놀(knoll)’을 업계 단독으로 선보인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부터는 영국 프리미엄 침대 브랜드인 ‘히프노스’를 팝업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 브랜드는 스웨덴 왕실 납품업체로 최대 1억 원이 넘는 ‘해스텐스’ 침대는 유명하다.

현대백화점 역시 지난달 서울 무역센터점 4층에 업계 최초로 이탈리아 명품 가구 브랜드 ‘폴리폼’ (Poliform) 매장을 열었다. 폴리폼은 1942년 이탈리아 북부 브리아자 지역에서 시작된 현지 대표 가구 브



랜드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76개국에서 800여개 매장을 운영 중으로 무역센터점에서는 105㎡ 규모로 테이블과 식탁, 소파 등 30여 종의 가구를 판다. 갤러리아백화점도 이달 24일까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에 덴마크 가구 거장 ‘핀울’ (Finn Juhl) 팝업 스토어를 선보인다. <사진> 핀울은 북유럽 디자인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진 건축가이자 가구 디자이너로 팝업에선 2000만 원대의 치프테인 의자와 그래스호퍼 의자, 1000만 원대의 펠리칸 의자를 내놓는다.

앞서 지난해 11월 롯데백화점은 강남점에 아예 대규모 편집샵을 열었다. 3305㎡(1000평) 규모의 세계적인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더콘란샵’은 오픈 첫 달 하루 평균 1만 명의 고객이 방문할 정도로 핫플레이스로 등극했고, 7개월만인 지난 6월까지 방문객 수는 100만 명으로 돌파

했다.

업계에서는 통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기준으로 삶의 질과 관련한 소비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입고 먹는 의류와 식품 위주의 소비에서 가구와 식기 등 리빙으로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는 국내 시장 성장세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홈퍼니싱(가구와 각종 인테리어 소품을 이용해 집을 꾸미고 개성 있게 꾸미는 일) 시장 규모는 2008년 7조 원에서 2016년 12조 5000억 원으로 두배 커졌고, 2023년에는 18조 원으로 덩치를 불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홈인테리어에 대한 니즈도 한층 높아졌다. 실제 신세계백화점의 올해 1~8월 가구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7% 성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된 8월에도 39.1%나 신장했다.

박성주 신세계백화점 생활팀장은 “위라벨 문화가 확산된 후 일과 삶을 구분하고 집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는 고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명품 가구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유통업체 “협력사 납품대금 추석 전 지급”

롯데·신세계·CJ ‘상생협력’ 앞장

주요 유통업체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물품 및 용역 대금 조기 지급에 나섰다.

롯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파트너사들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납품대금 6000억 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롯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태풍 등으로 한층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트너사들을 돕기 위해 조기 대금지급을 서둘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납품대금 조기 지급에는 롯데백화점, 롯데e커머스, 롯데정보통신,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등 35개사가 참여하며, 약 1만 3000개 중소 파트너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3일 전인 9월 28일까지 모든 지급을 완료할 예정으로 평상시 대비 평균 약 12일 앞당겨서 지급하게 된다.

신세계그룹도 추석을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이 회사가 이번에 조기 지급하는 납품 대금의 규모는 총 약 1900억 원이다. 각 사별 조기 지급 대금 규모는 이마트가 300여개 협력사에 약 1300억 원, 신세계가 1600여개 협력사에 약 500억 원, 이마트에브리데이가 150여개 협력사에 약 120억 원 규모다.

아울러 신세계그룹은 추석을 앞두고 납품 대금 지급 시기를 기존 정산일로부터 4~10일 앞당겼다. 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는 기존 9월 29일 정산분을 9월 25일로 4일 앞당겨 지급하며, 신세계는 10월 8일에 예정되어있던 지급 일자를 10일 앞당겨 9월 28일에 지급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이마트, 신세계,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납품 대금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협력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CJ그룹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에 약 3700억 원의 결제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6개 주요 계열사의 협력업체 약 7400여 곳이 선지급 혜택을 받게 되며, 정상 지급 일보다 평균 1개월 가량 앞당겨 결제 대금을 받는다. 선지급 규모는 CJ제일제당이 약 1600억 원, CJ대한통운 약 760억 원, CJ ENM(오쇼핑부문+E&M부문)과 올리브영이 각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CJ프레시웨이와 CJ올리브네트웍스도 약 300억 원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CJ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사들이 자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장기투자 지분까지 정리… 外人 ‘셀코리아’ 전방위 확산

코스피 지분 비중 35%로 추락
3·10년 만기 국채 4兆 순매도
셀트리온 핵심주주 ‘테마섹’ 등
전략적 투자자들도 잇따라 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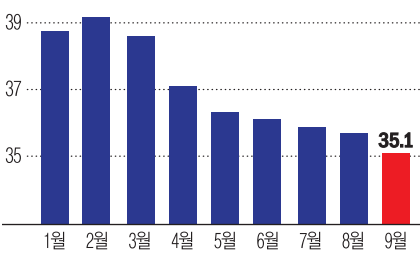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주식을 팔고 나가면서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보유지분 비중도 3년 반 만에 최저치(35.1%)를 기록했다.

외국인 자금 이탈세가 주식시장 매도를 넘어서 채권시장 매도로 이어진 데 이어 전략적 목적으로 국내 기업에 투자한 장기 투자자마저 지분 정리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바탕에 깔렸다는 방증이다.

8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7.69포인트(0.74%) 오른 2401.91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는 339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달에만 1조270억 원 가량 팔아치운 셈이다. 같은 기간 코스닥에서도 830억 원 규모로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보유 지분 비중은 연초 38.1%에서 35.2%(9월 평균 35.1%)로 감소했다. 월평균 기준으로 2017년 2월(35.74%) 이후 최저치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지난 2월 3조 3132억 원 순매도를 기점으로 3월 12조 5550억 원, 4월 4조1001억 원, 5월 3조

코스피 시총 대비 외국인 지분 보유 비중
(단위: %, 월평균 기준, 9월은 8일까지)



8838억 원, 6월 1조2188억 원을 순매도하는 등 5개월 동안 25조 원 이상 팔아치웠다. 7월 반짝 순매수세(1조791억 원)로 전환하면서 기대감을 키웠지만, 한 달뿐이었다. 8월엔 2조8469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한국 손절’에 나섰다. 특히 8월 마지막 날,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역사상 가장 많은 하루 순매도(1조6362억 원)를 기록했다. 자료가 존재하는 1999년 이후 외국인 사상 최대 하루 순매도 금액이다.

이 같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는 채권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에만 3·10년 만기 국채를 4조 원 넘게 순매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3년 만기 국채선물을 3만2663계약(액면가 3조2663억 원)을 순매도했다. 10년 만기 국채선물은 1만1414계약(액면가 1조1414억 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출렁인 지난 3월을 제외하고 지난 7월까지

매달 국채선물을 순매수해 왔다. 무엇보다 최근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외국인은 장기 투자에 나섰던 전략적 투자자들이다. ‘셀 코리아’가 기초 속에 블록딜 처분 소식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장기 투자자마저 국내 시장을 등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지난 4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회사 아이온인베스트먼트가 셀트리온 257만 주(지분 1.9%)와 셀트리온헬스케어 221만 주(1.5%)를 블록딜로 매각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초기 투자자이자 핵심 주주로 꼽힌다. 외국계 사모펀드 맥쿼리PE는 폐기물 처리업체 코엔텍이 울산시로부터 폐기물 매립 시설 증설 허가를 받은 뒤 1년여 만에 매각했다. 장기투자자로 유명한 템플턴자산운용은 휠라홀딩스 주식 60만 9479주(1.00%)를 처분했다. 지분율은 4.60%까지 떨어졌다. 스위스 국적의 크레디트 스위스 그룹 아게는 한신공영 지분율을 7.62%에서 7.43%로 낮췄다.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앤 리서치 컴퍼니 엘엘씨는 지난 8월 현대해상 주식 17만44주를 팔았다고 공시했다. 지분율은 9.92%에서 9.73%로 낮아졌다. 제이에프에셋 매니지먼트(아시아 퍼시픽) 리미티드는 키움증권 지분 1.04%(22만9052주)를 장내에서 처분했다. 지분율은 6.05%에서 5.01%로 떨어졌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제약·바이오기업 거품? … “R&D 강한 곳 주목”

‘코로나 치료제’ 종목 시총 급증
‘신풍제약’ 9개월 새 1987% ↑
‘일양’ ‘제넥신’ 200% 넘게 올라
“백신 이윤, 美기업 독식 구조…
실질적 수혜 있는지 확인해야”

국내 증시에 상장된 제약·바이오 종목의 올해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이 최고 200배를 웃도는 종목까지 나타났다. 주당 순이익이 200원이면 주가는 2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시장에서는 SK바이오팜의 ‘상장 대박’을 계기로 제약·바이오의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이중 유효성이 합작한 투기성 버블 아니냐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R&D(연구개발)가 강한 업체들만이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의 약품 지수는 지난해 12월 10239.62로 시작해 8월 말에 18913.09로 84.7%가 상승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주요업체 시가총액 현황
(단위: 억 원)

	시가총액 (8월 31일 기준)	증가율 (2019년 12월 2일 대비)
신풍제약	7조2325	1987.2%
일양약품	1조5536	275.1%
제넥신	40조931	254.1%
부광약품	2조4509	161.5%
엔지켐생명과학	1조1442	151.9%

※ 출처: 케이프투자증권

했다. 섹터 비중은 5.4%에서 8.8%로 늘어났다. 코스닥 제약 지수도 지난해 12월 7182.10으로 시작해 8월 말 13014.30까지 상승했다. 섹터 비중은 11.8%에서 15.8%로 증가했다.

의약품 지수는 3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하며 지수상승을 이끌었다. 실제 주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10곳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12월 초 대비 8월 말 기준 평균 318.28%의 증가율을 보였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신풍제약으로 시총이 같은 기간 1987.2% 증가했다. 이어 △일양약품(275.1%) △제넥신(254.1%) △부광약품(161.5%) △엔지켐생명과학(151.9%) △종근당(121.1%) △

녹십자(109.9%) 등이 100%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

코스닥 제약 섹터 역시 코로나19 분자진단업체(씨젠, 바이오니아 등)들의 주문 및 수출 증가로 지수상승을 이끌었고, 3월 이후부터는 항체, 항원 진단업체(바디텍 메드, 수젠텍 등)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씨젠은 지난해 12월 초 시가총액이 7280억 원에서 7월 말 6조8313억 원으로 838.4% 상승하며 제약 섹터와 코스닥시장 상승을 견인했다.

전문가들은 R&D에 강한 기업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김형수 케이프증권 연구원은 “진단업체들은 많이 증가한 실적으로 기업가치 상승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지만, 치료제 개발업체들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헤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상황에서 드러나듯 헬스케어 기업들이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이윤은 미국기업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K바이오에서 실질적 수혜가 올 수 있는 분야는 CMO 정도”라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공매도, 제도 미비로 부정적 인식… 감독 강화 필요”

‘공매도와 자본시장’ 심포지엄

감독 강화 등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제도적 미비점이 순기능도 있는 공매도에 대한 악감정을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변진호 이화여대 교수는 8일 온라인으로 열린 한국증권학회·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공매도와 자본시장’ 심포지엄 주제 발표에서 “공매도에 관한 국내 연구 결과는 대부분 순기능을 지지하지만,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만연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매도의 순기능으로 △주가 버블 방지 등 가격 발견 기능 △유동성 공급 △책임경영 촉진과 금융사기 방지 △위험 헤징 등 다양한 투자 전략 구사 등을 소개했다. 반면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만드는 요인으로 △주가 하락 가속화 △시장 질서 교란 △‘기술여진 운동장’ 논란 △결제 불이행 위험 증가 등을 꼽았다.

변 교수는 “공매도의 긍정적 역할은 대부분 공매도가 시장에서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가격 발견과 유동성 공급 등 합리적 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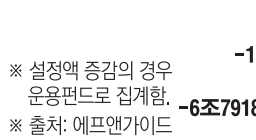
리에 따른다”며 “공매도의 부정적 관점은 경제적 부작용보다는 관련 제도 미비가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허용 대상을 일정 시총 규모 이상 종목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업티를 예외 조항 개선을 검토, 공매도 잔고의 일정 비율 이상 공시제도 강화 등 관련 정보 투명성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며 “개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 용이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신철 기자 camus16@

공모주펀드 및 국내주식형 펀드 증감
(단위: 억 원, 9월 7일 기준)



※ 설정액 증감의 경우 운용펀드로 집계함.
※ 출처: 에프앤가이드

설정액	3조1141	42조5164
1주 증감액	1293	
1개월 증감액	8090	
3개월 증감액	1조6168	

■ 공모주 펀드 ■ 국내주식형 펀드

SK바이오팜·카카오게임즈 청약 흥행에 공모주 펀드도 ‘인기몰이’

한달새 8090억 자금 유입
주식형은 1.7조 빠져나가
‘대어’ 빅히트 10월 상장
공모주 펀드 관심 이어질듯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기업공개(IPO)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공모주 펀드에도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일반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직접 공모 시장을 대신해 적은 돈으로 ‘결搏’을 쫓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공모주 펀드에 최근 한 달 새 8090억 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지난 1개월간 1조 6947억원이 빠져나간 것과 대조된다.

최근 공모주 청약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동학 개미’들이 대안 투자처를 찾아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1~2일 공모청약을 진행한 카카오게임즈는 3840억 원 공모에 58조 5000억 원이 몰려드는 일이 발생했다. 경쟁률이 1525대 1인 데다 증거금률은 50%였기 때문에 1억 원을 증거금으로 넣어놓으면 달랑 5주(12만 원어치)를 받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 공모에 참여한 약 41만 7000여 명 가운데 4만 명은 단 1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모주 청약 열풍은 카카오게임즈만의 일이 아니다. SK바이오팜이 공모 청약 열기에 불을 지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11개 기업이 청약 경쟁률 1000대 1을 넘겼다. 이 기간 공모 청약을 실시간 21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이다.

공모주 펀드는 대부분 평소엔 채권을 주로 담아 채권혼합형 펀드와 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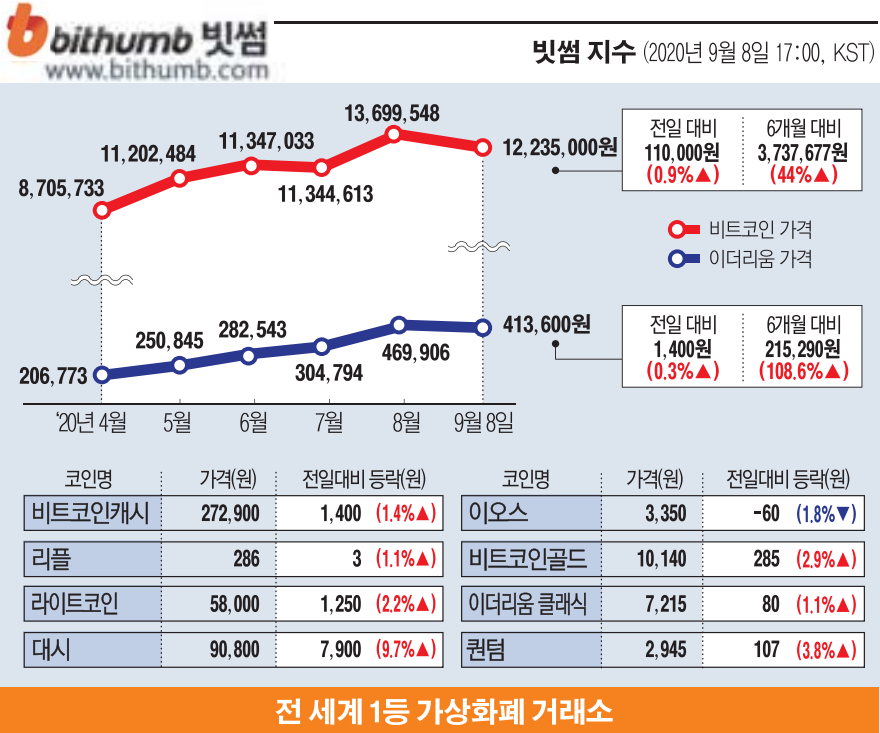
혼합형 펀드의 중간 수준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다. 운용수수료가 따르지만 기관투자자 자격으로 청약에 참여해 기관물량을 받아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같은 공모주 펀드라도 운용 전략에 따라 수익률은 천차만별이다. 하이일드 펀드는 올해 말 관련 규정이 일몰될 때까지 공모주의 10%를 우선 배정받는다. 특히 코스닥 공모주일 경우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우선 배정 10%와 별개로 코스닥벤처펀드가 공모주 30% 이상을 배정받는다. 일반 투자자에 배정되는 20% 비중의 1.5배다. 최근 대부분 기업이 코스닥 시장서 성장하면서 코스닥벤처펀드 수익률이 고공행진하는 까닭이다.

개별 펀드 중에는 ‘현대인베스트벤처기업&IPO증권투자신탁’ 27.8%(이하 최근 3개월 수익률), ‘하나UBS코스닥벤처기업&공모주증권투자신탁’ (18.9%), ‘에셋원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17.5%) 등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하반기에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IPO 기대주들이 대기하고 있어 공모주 펀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에만 상장 예정인 기업은 15~17개 수준(스팩 포함)이다. 지난달에는 13개 기업이 신규 상장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 7, 8월에 이어 9월 IPO 시장도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카오게임즈는 특히 청약증거금이 58.6조 원을 달성했는데, 이 자금이 10월 상장 예정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로 옮겨질지 관심이 모인다”고 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하남 미사 집값 무서운 상승세, 교산신도시에 꺾일까

미사강변푸르지오 84㎡ 호가 11억
미사강변골든센트로 84㎡ 10억 눈앞
지하철 개통에 서울 접근성 좋아져
청약 요건 채우기 위한 실수요 몰려
전세 매물 부족한 가운데 전셋값 꺾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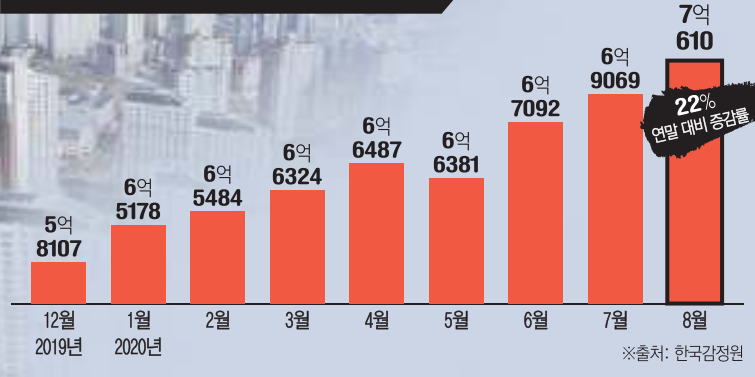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매물 부족 속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셋값도 강세다. 인근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신도시 청약에 위해 실거주 기간을 채우려는 수요가 계속 몰리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2016년 4월 입주한 하남시 '미사강변푸르지오 1차' 전용면적 84㎡형은 지난 7월 10억 8000만원에 팔렸다. 불과 1년 전 8억 2000만원에서 2억원 넘게 올랐다. 현재 호가는 11억 원 선이다.

인근 '미사강변골든센트로' 전용 84㎡



하남시 평균 아파트값 추이 (단위 : 만 원)



형은 같은 기간 최고 9억 6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집값 '10억 원'을 눈앞에 뒀다.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교통 호재가 잇따르면서 신설 교통망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며 "인근 서울 고덕동 일대보다 집값이 싸 수요가 늘고 있으나 매물이 많지 않다 보니 거래는 뜸한 편"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하남 미사강변도시 집값 상승세는 교통 호재가 이끌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우선 최대 호재는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개통이

다. 하남선 1단계 구간인 미사역~하남풍산역이 지난 8월 개통해 미사강변도시의 숙원사업이 하나 해결됐다. 전철 개통에 따라 미사역에서 서울 잠실역(30분), 강남역·광화문역(각 50분) 등까지 이동 시간이 크게 줄었다.

또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구간도 빼놓을 수 없는 교통 호재다. 이 구간은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고덕강일1지구 연결을 목표로 오는 2027년 준공될 예정이다. 하남을 거쳐 남양주 왕숙신도시까지 잇는 지하철 9호선의 5단계 추

가 연장 사업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하남 교산신도시 개발에 맞춰 하남과 송파를 잇는 하남~송파 도시철도가 놓일 예정이다. 하남시가 '준서울' 입지로 격상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같은 교통 호재에 힘입어 하남시 전체 집값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하남시 평균 아파트값은 5억 8107만 원이었으나 지난달엔 7억 610만 원으로 경종 뛰었다.

전세시장도 강세다. 하남 교산신도시 청약 대기자들이 하남시에 대

거 몰리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미사강변도시8단지스타힐스' 전용 74㎡형은 지난달 전세보증금 6억 9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올해 초 5억 3000만 원~6억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지만, 8개월 만에 보증금이 1억 원 이상 올랐다. 'e편한세상미사' 전용 69㎡형 역시 지난 2일 보증금 5억 7000만 원에 전세 계약됐다. 이곳은 올해 초 4억 4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망월동 P공인 관계자는 "교산신도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예비 청약자들이 최근 이곳 전셋집을 많이 찾는다"며 "특히 임대차법 시행 이후엔 전세 물건이 부족한 가운데 가격만 더 뛰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 교산신도시는 3만 20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에 기존 미사강변도시(3만 8000가구)의 향후 집값 상승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광창역 도시와공간 대표는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인근에 교산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입주 물량 폭탄으로 주변 집값이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팩트 체크

홍남기 "8·4대책에 집값 안정"



4억 떨어진 '반포 자이' 법인 급매물

〈전용 84㎡〉

3억 하락한 '마포 래미안' 다시 최고가

〈전용 59㎡〉

洪 "수도권 매수심리 진정...가격 하락"

거래 절벽 속 일시적 효과는 사실

"표본수 적고 6개월은 지켜봐야" 지적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8·4 공급 대책 이후 1개월이 지난 현재 나뭇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현실과 괴리된 발언이라며 고개를 가웃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수도권의 매수심리가 8월 들어 관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분위기"라며 "매매 심리지수가 매수우위에서 균형치인 100으로 근접했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상으로도 최근 일반 국민과 시장 참여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자평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홍 부총리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 시내 몇몇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 추이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가 인용한 단지는 서초구 '반포 자이',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3단지', 노원구 상계동 '불암 현대아파트' 등이다.

기재부는 7월 28억 5000만 원에 거래되

던 반포 자이 전용면적 84㎡형 매매가격이 지난달 24억 4000만 원으로 떨어진 것을 집값 하락 사례로 들었다. 다만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지난달 거래 사례는 특수한 거래여서 시장 상황을 대변할 수 없다고 한다. 법인이 급히 아파트를 처분하느라 가격을 낮춘 물건이어서다. 현재 반포 자이에선 27억 원 밑으로 전용 84㎡형을 구할 수 없고 고층부는 32억 원까지 값을 부른다.

기재부는 전용 59㎡형 실거래가가 7월 14억 원에서 지난달 11억 원까지 떨어졌다고 한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실상도 비슷하다. 지난달 7월 이 아파트 59㎡형이 11억 원에 거래된 건 맞지만 사흘 후인 9일엔 최고가인 14억 5000만 원에 팔렸다. 기재부가 8억 9500만 원까지 값이 떨어졌다고 한 리센츠 27㎡형 역시 같은 날 10억 7000만 원에도 거래가 체결돼 대표 시세로 보기는 힘들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수 표본만 가지고 정책 효과를 띄우려 한다고 비판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는 "아직 정책 효과를 말하기엔 표본이 너무 적다.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거래 절벽 상황이다 보니 일부 거래가 튀는 것"이라며 "정책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6개월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이달 분양전망, 서울 제외한 전국이 '악'

서울 0.9P ↑ 86.3...세종·대전 38P 뚝

9월 분양경기 전망치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하락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지방광역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분양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9월 전국 분양경기 실시지수(HSSI) 전망치가 지난달보다

15.8포인트(P) 하락한 60.8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전망치는 전월 수준을 유지했지만, 비수도권 전망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울의 이달 전망치는 86.3으로 전월 대비 0.9P 올랐다. 지난달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큰 폭으로 올랐던 세종은 전월 대비 38.4P 내린 66.6을 기록했다. 대전 역시 전월 대비 37.5P 하락한 50으로 집계됐다. 정용욱 기자 dragon@

휴온스

엘루비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인정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중 프로바이오틱스 기준, 2020년 4월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원료 L.acidophilus YT1의 인체적용시험결과

- 여성 갱년기 상태지수(KI) 11가지 총점 개선
- 갱년기 삶의 질 평가 지수(MENQOL) 4가지 항목 개선 확인



소비자 상담실 | 080-447-4700
판매사 (주)휴온스 | 제조사 (주)알피바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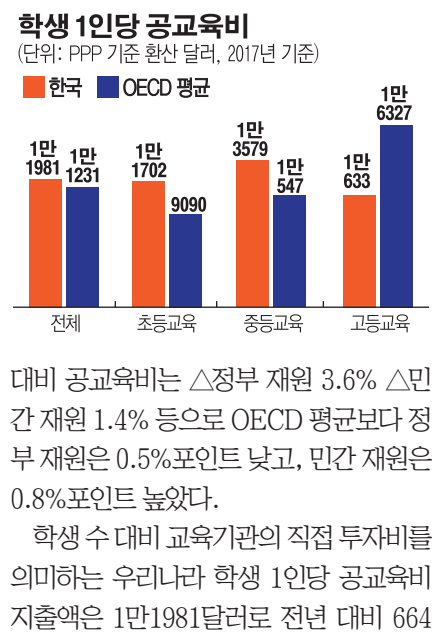


정부 공교육비 투자비율, OECD 평균보다 낮아

대학등록금 등 민간 투자 2배

정부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대한 재원 투자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에 투자하는 비율은 38.1%로 OECD 평균(68.2%)에 크게 밀렸다. GDP 대비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 재원은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 재원은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고등교육 정부 투자 여전히 낮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8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로 지난해(5.4%)보다 줄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부터 대학 단계의 GDP



달러 증가했다. OECD 평균(1만1231달러)보다 750달러 높았다.

◇학생 수 감소에도 OECD 평균보다 과밀 = 2018년 국내 교사 1인당(휴직자 기간제 교사 포함)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교 12.2명이었다. 모두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4.6명 △중학교 13명 △고등학교 13명을 상회했다.

줄곧 1위를 차지하던 '대학 나온 청년' 비율은 11년 만에 2위로 떨어졌다. 2019년 기준 대학을 나온 국내 성인(25~64세) 비율은 50%로 OECD 평균(39.6%)보다 높았다. 다만 2008년부터 1위를 차지했던 청년층(25~34세)은 69.8%로 OECD 국가 중 2위로 나타났다. 1위는 아일랜드로 집계됐다.

◇초임교사 연간 급여 OECD 평균 ↓... 15년 차 교사는 훨씬 많아 = 지난해 우리나라 초임 교사 급여는 △초등학교 3만 2111달러 △중학교 3만 2172달러 △고등학교 3만 1444달러 등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인 △초등학교 3만 3914달러 △중학교 3만 5073달러 △고등학교 3만 6772달러보다 모두 적었다.

이에 반해 15년 차 교사의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 4만 6801달러 △중학교 4만 8562달러 △고등학교 5만 701달러이었지만,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5만 6587달러 △중학교 5만 6648달러 △고등학교 5만 5920달러 등으로 조사됐다.

순현경 기자 son89@

KAI, 수리온 군수지원비 38억 받는다

법원 “방위사업청의 정산 거부는 계약 위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방위사업청(방사청)으로부터 수리온 후속군수지원 사업에 들어간 비용 수십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허기찬 부장판사)는 KAI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38억8000여 만 원을 지급하리”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3년 이뤄진 수리온 헬기 후속군수지원 관련 비용 문제를 두고 KAI와 방사청이 이견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KAI와 정부는 2014년과 2015년 후속군수지원 업무와 관련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은 제외했다.

정부는 “2014년 이후에 진행된 후속군수지원 업무는 용역 계약에 따라 비용 정산을 해줄 예정이나 2013년 업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KAI는 “정부가 2013년 후속군수



오후 2시 부터 한강공원 출입 통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8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독섬, 반포 등 한강공원 밀집 지역의 출입을 통제했다. 공원별 통제 대상 구역은 여의도 공원 이벤트 광장과 계절광장, 독섬 자발레 주변광장(청담대교 하부 포함), 반포 피크닉장 1·2다. 또 한강공원 내 매점 28곳과 카페 7곳은 매일 밤 9시 문을 닫고, 시내 11개 한강공원 내 43개 주차장도 밤 9시 이후 진입을 막는다. 서울시 관계자가 여의도 한강공원 계절광장에서 출입 통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

연남뉴스

“사금융 알선 은행원 유죄선고 받았어도 배상 책임 단정못해”

법원 “단순 형벌조항일 뿐”

금융회사 직원이 불법 사금융 알선 행위를 했더라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NH농협은행과 직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95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를 포기해 7월 7일 확정됐다.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농협은행 대출 팀장이었던 B 씨의 권유로 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C 씨에게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차례에 걸쳐 2억9500만 원을 빌려줬다.

이후 A 씨는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조건으로 초기 근저당을 해제했으나 C 씨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돈도 갚지 않자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사금융 알선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금융사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B 씨가 사금융 알선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는 단순 형벌조항에 따른 것인 만큼 바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B 씨가 고의로 부실한 기업을 소개해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채권회수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기영 기자 pgy@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츠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장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톤전성식을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편안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충얼과 다르다. 선배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대수일 말고 실리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X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대수일 이자, 후속한 성장설계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대사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에서 출발해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를 주는 멘토도 선택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인 회계정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재산과 구성원들의 명과 열정,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감없이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역경과 난관이 오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람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육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원 정책 제도과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개의 성공을 얻는 책 읽기 기술

어쩌다 보면 한 권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함은 물론, 같이 읽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한다.

이정호 지음 / 232쪽 / 4천원정가 / 15.800원

 동성제약

4주 지속 살충력!



비오킬 500mL (가정용)

우리집 해충 박멸엔 비오킬

● 4주 지속 효과! ● 침구류에도 OK! ● 무색무취! ● NO 프레온가스!

비오킬은 인체와 환경을 생각하는 선진국형 저독성 살충제입니다
특수 코팅된 원료로 햇빛, 높은 온도, 습도에 안정하며, 분사 후 4주 동안
지속적인 살충효과를 나타냅니다.

바퀴벌레, 파리, 모기, 빈대, 벼룩, 쥐이, 진드기, 좀벌레, 개미의 구제

“터키 리라화 불안정 한국 기업엔 큰 영향 없을 것”

김성수 NH증권 연구원의 ‘리라화 약세’ 진단

외국인 투자자에 적대적 태도·극단적 통화정책...환율방어 취약
정책 스탠스 바뀌지 않는 한 안정 어려워 ‘달러당 8리라’ 가능성

“리라화는 당분간 약세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본적인 정책 스탠스가 바뀌지 않는 한 안정을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김성수<사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터키는 외환보유고 고갈 등 당국의 환율 가치 방어능력의 취약한 점이 드러났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적대적인 정부 스탠스, 극단적 통화정책 등으로 환율 약세가 꾸준히 이어져 오는 것이 현재 리라화”라고 지적했다.

터키 리라화 약세는 연초부터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장종 달러당 7.3677리라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해 시장의 우려를 낳았던 리라화 가치는 이달 들어 7.4리라대까지 떨어지며 이제 8리라 가능성마저 언급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엔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이슈 등 외부 요소까지 더해져 리라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김 연구원은 설명

했다.

터키 정부는 지난달 20일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8.25%를 동결했다. 지난해 7월 무라트 우이살 터키 중앙은행 총재가 취임한 후 24%였던 기준 금리는 1년 만에 급격하게 떨어진 상태다. 김 연구원은 이 같은 터키 정부의 결정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격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제 인하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는 느낌”이라며 “현재 터키의 물가와 환율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사실상 정책 독립성을 상실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적인 점은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지속해서 은행들의 외화 지출을 완화와 같은 완화적 통화정책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주장 또는 거부하던 전 총재를 경질한 바 있다. 사실상 통



화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은행이 대통령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와중에 최근 동지중해 천연자원 개발을 놓고 ‘500년 앙숙’ 그리스와 대치하고 있어 유럽연합(EU)이 제재를 경고하는 등 나라 안팎에서 불안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리라화 약세가 한국과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리라화 약세만 놓고 본다면 한국과 유럽에 있어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다”며 “한국과 유럽 모두 터키를 생산거점으로 삼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환 약세로 인한 반사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터키와의 경제적 밀접도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과거 환 손실로 큰 피해를 본 일부 기업을 제외한다면 리라화 방향성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라화의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공세적인 외교정책과 독립성을 잃은 통화정책 등 근본적인 스탠스가 바뀌지 않는 한 환율 안정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김 연구원은 “주요국들과의 마찰로 인해 통화 스와프 등 통화 가치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물론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 코로나19 국면이 진정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터키를 방문한다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서방 국가들의 제재 리스크로 인한 금융·실물 투자 심리는 위축된 상태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이에 더해 자국 내 특별한 제조업과 첨단 산업 기술이 없고 생산 대부분을 외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터키의 경기 펀더멘털은 당분간 취약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대영 기자 koda00@

김정렬 前 국토교통부 2차관
국토정보공사 사장에 취임

한국 국토정보공사(LX) 신임 사장으로 김정렬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8일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온라인 비대면 형식으로 열렸다.

김 신임 사장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장, 정책기획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도로국장, 교통물류실장을 거쳐 2018년 4월 국토부 2차관으로 취임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최항집 前 현대차 부장 선임

사단법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8일 신임 센터장으로 최항집 전 현대자동차 부장을 선임했다.

신임 최 센터장은 고려대학교에서 기계공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은 뒤 현대자동차에 연구원으로 입사, 22년간 근속했다. 주요 경력으로 현대자동차 사내벤처 프로그램 담당, 팁스(TIPS) 프로그램 운영 및 스타트업 투자, 사내벤처 CEO 등이 있으며, 현대자동차의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이자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제로원’의 센터장을 지냈다.



김우람 기자 hura@

에티오피아 현직 장관, KAIST 박사 됐다

메쿠리아 총리자문장관 최우수 졸업 ‘과학기술대 사례 벤치마킹’

올해 지천명(50)을 맞은 에티오피아 현직 장관이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술경영학부 글로벌IT기술대학원에서 8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메쿠리아 테클레마리암<사진> 에티오피아 국무총리자문 장관이 그 주인공이다.

메쿠리아 장관은 2016년 9월 KAIST에서 박사과정 첫 학기를 시작한 지 4년 만인 올해 8월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메쿠리아 장관은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나라”라며 “에티오피아의 발전을 위해 성공사례를 보유한 국가의 성장 원동력을 학문적으로 연구해 보고 싶었

다”고 유학 배경을 밝혔다.

40세에 도시개발주택부 장관으로 취임해 에티오피아 역사상 최연소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운 메쿠리아 장관은 2015년 KAIST에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6개월의 준비 끝에 KAIST 기술경영학부 글로벌 IT 기술대학원에 합격했지만 사표가 반려되면서 그 해엔 입학하지 못했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 그의 유학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고, 다수의 지지를 얻어 도시개발주택부 장관에서 국무총리자문 장관으로 직위를 변경한 뒤에야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다.

2016년 가을부터 한국 생활을 시작한

메쿠리아 장관은 지난 4년간 학업에 매진했다. 정보격차 해소가 경제성장과 부패통제에 미치는 영향·개발도상국의 초고속인터넷 보급 및 확산정책 등의 주제를 연구해 국내외 학회에서 발표했다. 특히 한국 정보통신진흥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과의 협업 연구를 진행해 글로벌IT기술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우수 협력연구상을 2018년에 두 차례 수상했다. 또한 졸업논문 연구로 수행한 ‘확산 단계별 맞춤형 모바일 초고속인터넷 확산정책’에 관한 논문은 정보통신 분야의 최우수 국제학술지에 속하는 SSCI 저널인 텔레커뮤니케이션즈 폴리시에 8월 졸업에 앞서 게재됐다.

광대역 통신망을 갖춘 국가들의 효과적 인 정보통신 정책을 분석해 개발도상국에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는 계량적 정책 연구



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결과다.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메쿠리아 장관은 글로벌IT 기술대학원의 최우수 졸업생이란 영예와 함께 지난달 13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18일 신성철 총장을 접견한 메쿠리아 장관은 “지난 4년간 직접 경험한 KAIST의 연구·행정·산학협력 등을 벤치마킹해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훈 기자 yes@



코오롱 ‘원앤온리 타워’ 국제건축대상 기업빌딩 부문 수상

코오롱그룹은 강서구 마곡 산업지구에 있는 ‘코오롱 원앤온리(One&Only) 타워’가 국제건축대상(International Architecture Awards) 기업업무빌딩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제건축대상은 최근에 지어진 건축물

과 건축가 중 수상자를 선정해 부문별로 시상한다. 올해 기업업무빌딩 부문에는 스위스의 올림픽 하우스 IOC, 미국의 옥스너 센터 포 이노베이션, 영국의 52 라임 스트리트 등 총 6개 건축물이 선정됐다. 한국에서는 ‘코오롱 원앤온리 타워’가 유일하다.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파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하경희 △식사문화개선 TF 지원근무 이장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장 변상문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심사1담당관 유재준 △국세청 오상훈 ◇과장급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김태호 △국세통계담당관 이은규 △감찰담당관 강영진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근재 △상호합의담당관 장우정 △조사2과장 한경선 △조사분석과장 이성글 △장려제제신청과장 강승운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경목 △조

사1국 조사2과장 이정희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신재봉 △조사4국 조사2과장 김영상 △조사4국 조사3과장 김정윤 △국세조사관리과장 김범구 △성북세무서장 김수현 △도봉세무서장 권순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최성영 △인천지방국세청 정세송무과장 양경렬 △국세청 장신기 △김정주 △초임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정희진 △여수세무서장 김상구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과장 김문희 △금정세무서장 이종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조기현 △기획예산실장 남경백 △인재개발실장 조인목 △사업지원실장 강석배 △감사인 안전현

부음

▲이철섭 씨 별세, 이철규(르노삼성 법인팀 차장)·재종(청와대 행정관)·선혜·소연·경마·승화·선화 씨 부친상, 이동주(광영석대 대표)·김수정(전 농림부 서기관)·김기중(전 민족사관고 교사)·정형철(전 전남대 언어교육원 교수)·전국일(시우산업개발 대표) 씨 장인상 = 8일,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201호, 발인 10일, 062-951-1004

▲정성모(전 신일제재소 사장) 씨 별세, 정진욱·진용(DB Inc. 부사장)·진아·희경 씨 부친상, 장철우·박태수 씨 장인상 = 7일, 강남삼성의료원 12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30분, 010-4272-2757

여가부 ‘가족 언어생활’ 공모전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대상

여성가족부가 6~7월 실시한 ‘가족 언어생활 공모전’과 ‘세상모든가족, 함께 응원해요’ 캠페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담고 있는 표현들을 찾아 개선하고자 진행된 ‘가족 언어생활 공모전’ (6월 2일~7월 10일)에는 총 659점의 작품이 응모돼 11점의 수상작과 5점의 격려상을 선정했다.

대상 수상작인 영상물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사진>는 마음을 열리베터 문으로 비유하여 마음이 닫혔을 때의 언어와 열렸을 때의 언어를 대조해서 보여준다. ‘할아버지 혼자 아이를 어떻게 길러요?’라



는 표현이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니 사랑받겠구나!’와 대조되면서 마음의 문을 연다면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주제를 담았다.

공모전 수상작과 ‘함께 응원해요’ 캠페인 게시물 등 자세한 내용은 ‘세상모든가족함께’ 홈페이지의 ‘참여세상’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김소희 기자 ksh@

일본은 지금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정치학

스가 총리 체제가 되면 한일관계는 개선될 것인가. 스가는 아베 정권을 계승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당장 한일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스가는 실무형, 관리형의 총리가 될 것이므로 중단된 한국과의 대화는 시작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월 28일 전격적으로 사임하면서 다음 총리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확실시되고 있다. 자민당 총재선거는 9월 14일 실시된다. 이번엔 자민당 국회의원 표 394표와 자민당 지방당 47군데가 3표씩 행사하는 141표, 합계 535표로 약식 총재선거로 실시된다. 그런데 국회의원 표 중 스가에 투표하겠다는 자민당 의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아베 총리가 속한 호소다파 98명, 아소파 54명, 다케시타파 54명, 니카이파 47명, 이시하라파 11명, 그리고 스가계 의원 약 50명 등 3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스가에 투표하겠다고 나섰다. 이 인원수는 자민당의 중의원과 참의원을 합한 자민당 국회의원 수 전체의 약 75%가 된다. 그리고 지방표 141표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스가에 투표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50표 이상이 국회의원표에 더해져서 합계 약 350표가 스가의 득표가 된다. 이것은 전체 535표의 약 65%가 되므로 스가가 차기 자민당 총재가 되는 것은 이번이 없

는 한 확실하다. 일본 총리는 직선제로 뽑는 것이 아니므로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당의 총재가 총리가 된다. 9월 17일 실시되는 국회에서의 총리 지명선거 때 다른 정당들이 투표에 참여하지만 현재 자민당이 여당으로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가가 총리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의 투표판으로 총리가 결정되니 민의가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내각제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보통 총재선거를 할 때는 당원표라는 게 있는데 이에선 국회의원 수와 같은 수의 표가 배분된다. 원래 이번 자민당의 당원 표는 국회의원 표와 똑같은 394표였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표와 합해서 총 788표가 원래의 총재선거 때의 투표수였다. 그러면 이번엔 '왜 자민당 총재선거를 약식으로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민의를 조금이라도 반영하려면 적어도 당원표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엔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과 코로나19 사태

라는 긴급사태 속에서 총재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약식 총재 선거가 가능하다고 당칙에 나와 있다는 것이 선거 책임자인 나가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의 설명이다. 결국 9월 1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약식 총재선거가 결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145명에 달하는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당원 표를 포함시키는 총재 선거방법을 주장했지만 결국 약식으로 정해졌다. 그 대신 조금이라도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당에서 우선 당원들의 예비선거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 지방당의 3표에 반영시키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그래도 이번엔 당원 표가 141표로 적어서 민의가 반영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선출된 총재, 총리는 정통성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자민당은 과거에도 몇 차례 긴급사태시에 약식으로 총재를 뽑은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정권의 정통성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새 내각은 얼마 되지 않아 총사퇴하여 국회를 해산시켜

중의원(하원) 선거를 실시한 경우가 많았다. 중의원 선거로 자민당이 이기면 정권이 정통성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9월 2일 열린 스가 관방장관의 총재선거 출마 기자회견 시에도 국회 해산과 중의원 선거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했다. 이에 스가는 우선 코로나가 종식해야 하고 그 후에 상황을 보고 국회를 해산해서 중의원선거에 돌입할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의원선거를 할 때는 자민당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자신들이 승리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실전에 옮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재임 기간 중 여섯 번의 선거에서 모두 이겼다. 승리할 수 있는지 먼저 자체 여론조사를 하여 선거 시기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가 총리 체제가 되면 한일관계는 개선될 것인가. 스가는 아베 정권을 계승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당장 한일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스가는 실무형, 관리형의 총리가 될 것이므로 중단된 한국과의 대화는 시작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얼마 전 서울 강남의 논현동 거리를 걷다가 채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전동킥보드를 탄 청년 3명이 1~2분 간격으로 내 바로 옆을 휩 지나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때 내가 곧바로 걷지 않고 살짝 옆으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났다면 킥보드와 부딪치지 않았을까 싶어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람이 다니는 보도의 내 뒤쪽에서 킥보드가 달려오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킥보드와 부딪쳤다면 나 뿐만 아니라 킥보드 이용자도 함께 다치지 않았을까 싶다. 그 당시 청년 3명 모두 헬멧 같은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자 사고도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또 경찰청의 전동킥보

드 부상·사망 통계를 보면, 2017년 128명 중 부상자 124명, 사망자 4명이며, 2018년 242명 중 부상자 238명, 사망자 4명이다. 부상자 숫자에는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는데도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 보장과 이용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규제 완화로 인해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개정 법률에는 그동안 차도 통행만 허용돼온 전동킥보드에 대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킥보드 이용자 안전을 도모했다. 하지만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만 13세 이상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해, 청소년 이용자의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는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만 18세 이상

은 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갖춰야 한다. 또 이 개정 법률에는 안전과 직결되는 헬멧 착용은 의무지만, 단속과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경찰이 적발하더라도 범칙금이 없다. 그동안 헬멧 착용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되던 법률 아래서도 헬멧을 착용하는 이용자가 많지 않았는데, 단속 및 처벌 규정 없는 새 법률 아래 이용자들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헬멧 착용 규정을 준수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번 아니라 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게 된 전동킥보드가 별도 분리장치 없이 보도에 설치된 겸용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이 더 커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자전거도로의 77.3%는 보도 겸용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이다. 새로 바뀐 법 규정이 이용자의 편의는 높였지만, 보행자의 안전은 그다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여전히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공유 전동킥보드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비롯한 종합관리에 나섰다. 지난 8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PM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P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PM 이용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규제보다는 이용자 스스로의 책임과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럼에도 PM법(가칭) 제정·시행 전까지 적용될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새 PM법에는 개선방안이 반영돼야 한다. 헬멧 착용이 지켜지지 않거나 중고생들이 안전이용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 사고가 늘어난다면, 새 PM법에는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와 중고생 안전교육 의무화 등 안전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을 꼭 담은 것을 제안한다.

☆ 로버트 프랭크 명언
“작가는 사진에 자신의 삶의 무게를 표현하게 된다. 예술과 생활은 불가분의 관계다.”
스위스계 미국인 사진가. 구겐하임재단의 기금으로 1년 남짓 미국을 두루 다니며 사진을 찍은 후 '미국인'이라는 이름의 사진집을 출간했다. 운집한 군중 속의 고립, 냉랭한 현관들, 밀폐된 창문들, 자동차에 대한 숭배와 고속도로 등 미국인의 실상을 보여주는 이 사진집은 현대 사진 예술의 분수령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1924~2019.
☆ 고사성어 / 이삼우반(以三隅反)
나머지 세 귀퉁이를 들어 반대로 입증해 보인다는 말. 가르침을 받고 추리와 응용을 한다는 뜻이다. “배우려는 열의가 없으면 이끌어주지 않고,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으며, 한 모퉁이를 들어 보였을 때 나머지 세 모퉁이를 미루어 알지 못하면 반복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不憤不啓 不悱不發 舉一隅不以三隅反則不復也].” 출전 논어(論語) 술이(述而)편.
☆ 시사상식 / 홀라크라시(holacracy)
조직의 위계질서를 없애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 영국 철학자 겸 작가 아서 케슬러가 '자율적이면서 자급자족적인 결합체'라는 의미로 소개한 신조어 홀라키(holachy)와 통치, 지배를 뜻하는 어근 크라시(cracy)를 조합한 합성어다. 조직 문화를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의사결정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 고운 우리말 / 는개
안개처럼 부엌에 내리는 가는 비. 연우(煉雨).
☆ 유머 / 셀프 천지
네 살 아이가 불 일을 본 후 “엄마, 똥”하며 엄마를 불렀다. 습관을 고쳐주어야겠다고 생각한 엄마가 “안 돼! 이제부터는 혼자 똥야야 해”라고 하자 아이가 한 말. “그럼 이제부터 똥은 셀프야?”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정용욱 부동산부/dragon@

부동산 규제 태풍 이후

않고 한반도를 지나갔다. 하지만, 옛 기억이 떠올라 유독 불안했다. 올여름 장마와 태풍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동안 부동산 시장에도 '규제 태풍'이 몰아쳤다.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규제지역 확대, 3기 신도시 청약 계획 조기 발표 등이 연달아 쏟아졌다. 모두 수도권 집

값 급등세를 막기 위한 극약 처방들이었다. 하지만 이 태풍이 부동산시장에 상륙해도 '찾잔 속 태풍'에 그칠까 걱정이다. '과거 3차례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모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2007년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 전개와 결과를 되

짚어보기 위해 발간한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의 한 부분이다. 2020년 청와대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첫 문장이라고 해도 손색 없다.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만든 보고서 내용을 만큼 현 정권도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당연히 답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공급 확대'라는 해결책을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약하게 내놔다. 태풍 매미 이후로 수해 방재시스템이 대폭 개선됐다. 이번 태풍 마이삭이 똑같은 경로를 지나갔지만 피해가 약한 이유 중 하나다. 집값 급등 대응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집값 급등이라는 재해가 지나가길 바라는 상황이 더는 반복돼선 안 될 일이다.

평균수명 5년인 당명은 죄가 없다

제1야당이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정했다. 2월 미래통합당이라는 간판을 단 지 6개월 만이다. 2017년 박근혜 탄핵 후 벌써 세 번째이고 민주화가 뿌리내린 1990년 이후로는 6번째다. 평균 수명은 5년이다.

국민의힘은 보수를 대표하는 당이다. 박정희 정권의 공화당이 그 뿌리다. 공화당의 바통을 이은 민주정의당과 김영삼(YS)의 통일민주당, 김종필(JP)의 신민주공화당의 3당합당으로 민주자유당(민자당)이 출범한 것은 1990년이다. 그 후 30년간 위기 때마다 과거 청산을 명분으로 간판을 바꿨다. 당명 변천사는 보수 정치의 흥망성쇠 역사다.

민자당은 1992년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3당의 화합적 결합에 실패했다. 결국 계파갈등으로 한 축인 JP세력(자유민주연합)이 1995년 떨어져나갔다. 여기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 12·12 내란죄 등으로 구속되는 악재가 더해졌다. 그 출구가 1995년 신한국당이었다. 이회창의 신한국당은 1997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통합민주당과 합당하면서 간판을 한나라당으로 바꿨다. 한나라당은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약 15년간 유지됐다. 민주화 이후 '최장수 당명'인 한나라당을 2012년 새누리당으로 교체한 것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새누리당은 5년 뒤 탄핵과 함께 사라졌다. 탄핵풍은 보수당의 궤멸로 이어졌다. 새누리당이 3년 새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바뀌는 과정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당 상황을 대변한다.

당명 수난사는 비단 보수당만의 얘기는 아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도 30년간 10번 간판을 바꿨다.

민주주의 역사가 긴 서구의 100년 정당에 비하면 초라하다. 1828년 창당한 미국

데스크칼럼

이재창

오프라인뉴스룸 에디터



의 민주당과 공화당(1854년)은 지금도 그대로다. 민주주의 역사가 긴 영국도 한 차례 당명 교체를 거쳐 1차 세계대전 후 정립된 노동당과 보수당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일본 자유민주당 간판도 70년째다. 유독 잦은 당명 교체는 우리 정당정치 of 후진성을 보여준다. 철학의 빈곤에 애매한 정체성, 여기에 포퓰리즘이 더해진 결과다. 우리 정당은 잡탕당에 가깝다. 추구하는 가치가 분명치 않아 정체성이 모호하다. 자연 정책은 좌우로 뒤죽박죽이다. 표논리에 휘둘리면서 포퓰리즘이 판을 친다. 공유하는 가치가 없어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당에 애정이 있을 리 없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간판을 새로 다는 정도는 일도 아니다.

그나마 진보세력은 적어도 정체성 혼란은 극복했다. 정의당은 진보이념의 유일한 제도권 가치정당이다. 민주당은 진보의 색채를 강화한 개혁정당이다. 진보정당은 아니지만 진보의 평등 가치를 일관되게 추구하면서 진보의 정체성이 뚜렷해진 건 분명하다. 문제는 보수당이다. 국민의힘의 전신은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 솔직히 정체성은 있는지 의문이다. 수십 년을 '박정희 향수'와 '영남 대 호남'이라는 지역구도, 반공이데올로기에 안주했다. 그것만으로도 선거 승리에 충분했다. 보수의 가치인 자유는 거추장스러웠을 터다. 보수를 자임하면서 진보 화두인 경제

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당의 가치조차 공유하지 못했다. 어설픈 흥내를 냈을 뿐 진정한 보수와는 거리가 멀었다. 시대 흐름을 무시한 채 과거 향수에 매달렸다. 쥘통 보수 이미지는 그렇게 굳어졌다. 불과 얼마 전 얘기다. 빈곤한 철학에 무능, 지도력 부재, 불통이 결합해 만든 최악의 결과가 박근혜 탄핵이다. 국민의 엄중한 경고에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도 없었다. 대선과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참패는 필연적이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야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당명 교체는 그 첫 시도다. 새 간판은 국민의 관심을 끌겠지만 지지는 다른 얘기다. 명확한 정체성에 여당과 정책 경쟁을 벌일 수 있는 내공, 밀어줄 만한 인물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국민의힘은한국형 기본소득과 경제민주화를 핵심 성장정책으로 제시했다. 모두 진보 이슈다. 국민의힘이 보수당을 고집한다면 정체성 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작품에 구성원들이 동의하는지 분명치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공감대가 있다면 중도노선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극우세력과 과감한 단절이 먼저다. 정체성은 정책과 직결된다. 극우와 극좌를 넘나드는 색깔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반대당 이미지 탈피 노력도 시급하다. 경제뿐 아니라 남북관계, 외교 정책을 놓고 여당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북한과의 대결정치 일변도에서 탈피해 합리적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참신한 외부인사 영입과 함께 당내 신진세력을 키우는 것도 당면 과제다. 중도노선의 대안정당으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후년 대선 성패는 여기에 달렸다.

leejc@

사설

물 건너간 경기반등, 취약계층 신속 지원 급선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종전의 0.2%에서 -1.1%로 내려잡았다. 반기 성장률도 상반기 -0.7%, 하반기 -1.4%를 예상해 경기가 계속 하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의 5월 전망 당시 비관적 시나리오였던 성장률 전망치 -1.6%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우리 경제의 V자 반등에 대한 기대는 이미 물 건너갔다. 하반기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의미해졌다. 정부는 물론, 국내외 경제 예측기관 대다수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보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는 -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 한국은행 -1.3%이다.

KDI의 -1.1% 성장 전망도 긍정적 시나리오에 치우친 낙관론이라는 비판이 많다.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세계 경제 부진이 하반기부터 서서히 완화되고, 국내에서도 확산세가 9월부터 진정돼 경제활동이 정상화로 진전되는 것을 전제로 한 까닭이다. 하지만 지금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봉쇄적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경제가 마비되면서 취약계층부터 흔들리는 민생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KDI도 강화된 방역조치가 지속되면서 민간 소비가 가라앉고 단시일 내 되살아나기 어려운 점을 우려했다. 그 여

파가 서비스업과 자영업자 등의 위기로 이어지면서, 이들 업종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고용시장부터 얼어붙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 조사에서 7월 자영업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만7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2만6000명이 감소한 것과 견주면 5배나 많아진 숫자다.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7만5000명 감소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폭 4만8000명을 크게 웃돌았다. 소비 냉각에 따른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이 고용했던 직원을 내보냈거나, 퇴직한 임금 근로자들의 창업도 대폭 줄었다는 의미다. 경제의 모세혈관이자, 바닥 경기를 반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몰락이야말로 경제 위기의 뚜렷한 신호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서비스업과 민간 소비를 얼어붙게 하고,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폐업과 실직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다. 이를 끊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조치가 시급하다. KDI도 당분간 코로나 위기를 견뎌내는 경제·사회 시스템 유지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결국 가장 급한 일은 코로나19 사태를 가라앉히는 빈틈없는 방역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도 이미 결론이 난 만큼, 하루빨리 편성되고 급한 곳에 신속하게 지원돼 실효성을 거두도록 해야 한다.

충영록의 이슈노트

산업부 차장



삼성전자의 강점은 잘 짜인 사업 포트폴리오다. 스마트폰, TV 등 세트사업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부품 사업을 모두 영위하며 한쪽 사업이 불황일 때 다른 쪽 실적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사업 경쟁력이 없다면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D램, 낸드플래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등 주요 전자·IT 품목에서 세계 1위다.

핵심인 메모리반도체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섰다. 1993년 D램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른 후 28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다. 낸드플래시도 2002년부터 18년 연속 1위다. 하드드라이브를 대체하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는 2006년부터 13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다.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전환해 화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반도체인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DDI)도 17년 연속 1위다. 스

오너의 끊임없는 신사업 갈증

마트폰에 탑재되는 중소형 OLED 역시 80%가 넘는 점유율로 세계 1위다. 세트 사업에서도 TV는 지난해 14년 연속 TV 시장 1위를 지키며, 사상 최초로 글로벌 시장점유율 30%를 넘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애플과 화웨이를 꺾고 1위를 지키고 있다. 그야말로 삼성이 얘기하는 '초격차'가 잘 드러나는 사례들이다.

삼성전자는 마치 '갑판전국'처럼 수십 가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내는 회사다. 이병철 선대 회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동안 끊임없는 신사업 진출을 갈망했기 때문이다. 메뉴가 다양해졌지만, 맛을 놓치지 않았다. 라면과 김밥, 돈가스 등은 이미 세계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 다만 새로 도입한 메뉴에서 기존 강자보다 좋은 맛을 내기란 쉽지 않다.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대형 수주 소식이 잇달아 들려오고 있는 건 고무적인 일이다. 7일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 미국 버라이즌에서 8조 원 규모의 5G 통신 장비를 수

주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세트 사업의 핵심인 스마트폰이 매출과 수익 면에서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5G 장비 사업이 새 성장동력으로 본격 자리매김했다는 의미가 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잇따른 수주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올해 2월 퀄컴의 차세대 5G 이동통신 모뎀 칩 생산 계약을 따냈고, 최근에는 미국 IBM과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추가했다. 메모리 사업이 부진해도, 파운드리 등 비(非)메모리 사업으로 메울 힘을 갖게 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010년 경영 복귀와 함께 "10년 뒤엔 삼성전자의 모든 제품이 사라진다"며 신사업 의지를 불태웠다. 이재용 부회장은 5월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력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겠다"고 했다. 오너의 신사업 열정은 기업이 녹슬지 않게 하는 윤활유다. 과감하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기업인의 기(氣)를 살려주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syr@

세무, 특! 1가구 1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전체나 일부에 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알아둬야 한다. 세법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은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고 해의 주택이 아니라면 임대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월세 소득은 무조건 과세되지만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얼마이든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3주택 이상자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도 과세를 하고 2주택 이상자의 경우 2000만 원 이하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비과세하다가 2019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고가 1주택자는 임대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그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1가구 1주택이라도 비과세 여부에 대한 기준시가 9억 원을 판단하는 시점은 매년 12월 31일 또는 그 주택의 양도일이 다. 2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처분한 경우

에는 잔금일 전까지는 2주택에 대한 과세 여부, 잔금일 후에는 1주택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가구 1주택자가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임대소득은 비과세되지만 공동명의 주택과 기준시가 기준에서 보유주택 수는 부부가 소유한 것을 합산해 계산한다. 공동명의든 아니든 부부가 소유한 주택은 1채 이하여야 한다. 다가구 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登記된 다가구의 경우에는 각각 주택 한 채로 계산한다. 또한,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두 명 이상이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이와 같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면 △소득세를 안 내도 되고 △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료 부과 가능성이 없다. 기타 세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세무대리인과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모든 세상이 노트 안에

Galaxy Note20 구매 시,
중고 단말기 최대 2배 보상

Note20 시리즈를 구매 하신 후, 기존 Galaxy 또는 iPhone 단말기를 반납하시면 중고 단말 매입 시세의 최대 2배까지 보상해드립니다 (행사기간: 2020. 09. 01 ~ 10. 31)

* 대상 모델 및 중고폰 매입시세는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통신사, 삼성 디지털프라자 (일부 해당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 참조



Galaxy
Note20 | 20 Ultra

The power to work & play.